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e-book으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군 문화회관(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감만창의문화촌,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상인디스테이션, 홍티아트센터, 도시철도 북 하우스, 영화의전당, 부산시립미술관, 영광도서관, 포따또가 운영센터,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처 문의 : T. 051-745-7223 E-mail. aktw5555@bscf.or.kr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744.7707 F. 051. 744.7708~9
www.bscf.or.kr

공감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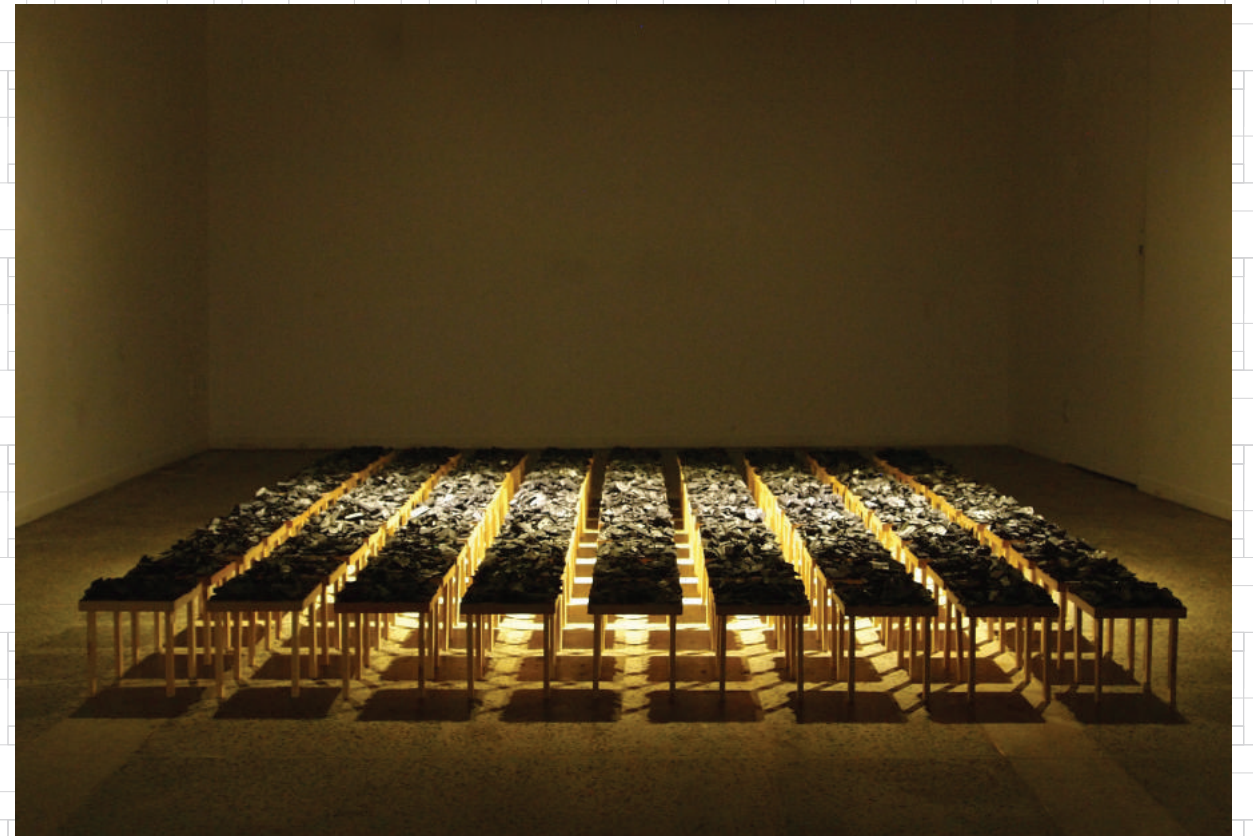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23 Winter 2016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23 Winter 2016



부산문화재단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23 Winter 2016

CONTENTS

004
여는 글 정봉석

012
문화 돋보기Ⅰ
부산의 자매도시를 찾아가다®



014
문화 사막에서 유네스코 지정
디자인 창의도시로 변신한 선전 리야오(李耀)

022
표류하는 예술의 도시 충칭 니쿤(倪昆)

034
황폐한 공장에 일군 798예술구의 명성 베이징 김창희

040
일본 개항과 국제교류의 원조 나가사키 박창희

048
말문을 열다

050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는 도시, 부산 이택광

054
완숙한 황혼이 아름답다.
예쁘고 바른 우리말을 지키는 연극인 전성환 이내



062
나는 예술가인가 예술 강사인가? 손재서

066
하연화, 춤 같은 삶을 사는 춤꾼 이청산

070
문화 돋보기Ⅱ

072
부산사람, 부산의 노래, 부산의 미래 김형찬

076
부산의 노래 김창욱 박철홍 장현정 정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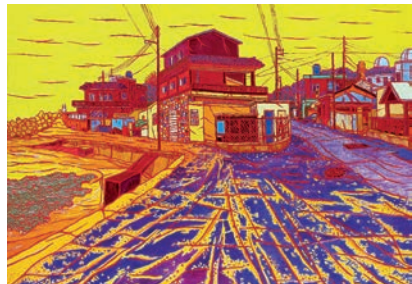
082
눈을 맞추다
독자와의 교류

086
손을 잡다
모두의 축제,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페스티벌 고윤정

090
속살을 보다

092
[창작발간] 지역 출판이 나아갈 길 황선열

096
[시각예술] 핵몽을 따라 걷다 김소라



100
[예술기획]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만남 서승우

104
[공연예술] 소극장, 새로운 연극을 향하여 전혜림



108
부산문화재단은 지금
교류(交流): 함께 흐른다는 것의 의미 박은지

부산문화재단 「공감 그리고」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공감 그리고」는 국·내외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제공형 문화예술 잡지'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은 모두 개인 필자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통권 23호 정기간행물(부산광역시바01159) 등록일 2011.6.23 발행일 2016.12.30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051-744-7707 www.bscf.or.kr
편집주간 정봉석 편집위원 구본호, 김종균, 김희진, 동길산, 정민정, 정봉석
편집기획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디자인·제작 한글그래픽스 Tel. 051-632-7842

공감 그리고,

글 정봉석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본지 편집주간

대망의 2017년, 정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60갑자를 한 주(週)로 칠 때, 여섯 주 전인 1597년에는 정유재란이 일어났습니다. 두 주 전인 1897년에는 대한제국이 선포되었지만, 주변국들의 위협 아래 국운은 백척간두에 내몰린 듯 위태로웠습니다. 한 주 전인 1957년은 한국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국민의 노력과는 달리 이승만 독재 정권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유엔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병신년에 아베 정권은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평화헌법 9조에 반하는 자위대 해외파병의 안보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사드를 유치하려는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변 강대국들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처지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유년을 희망차게 맞이하는 이유는 평화적으로 이어지는 촛불시위를 보면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이 난국이 타개되어 우리나라가 자율권을 가진 주권국가로서 국제 정세에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기를 새해 아침에 기원합니다.

『공감 그리고』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共感)이란 말 그대로 ‘같은 감정’ 또는 ‘함께 느낌’입니다. 공감과 같은 말은 동정(同情)입니다. 영어로는 ‘sympathy’ 또는 ‘compassion’이 있습니다. 감정(pathos)이 같다(sym) 또는 느낌(passion)을 함께 한다(com)는 말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나와 같이/함께 느낄 때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하나로 꿰뚫는 말로 서(恕), 즉 ‘같이(如) 느끼는 마음(心)’을 꼽았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예술과 문화를 이루는 첫 번째 본질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감 그리고’에 이어지는/생략된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비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비판은 흔히 비난의 뜻으로 쓰이지만 엄밀히 다른 말입니다. 비판은 잘못을 꼬집는 비난(非難)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고르게 재고(批) 가르는(判) 것입니다. 영어인 ‘critic’ 또한 그 어원은 그리스어 ‘kritein’으로 ‘가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이란 옳고 그름(是非)과 좋고 싫음(好惡)을 공정하게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비판의 능력이 예술과 문화를 이루는 또 하나의 본질인 까닭이 이에 있습니다.

지난 2년 간 편집위원회는 ‘공감 그리고 비판’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체제를 가다듬고 나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기획특집으로 마련하였던 ‘문화 돋보기 I - 부산의 자매도시를 찾아가다’는 이번 호에 텐진, 베이징, 선전, 충칭, 나가사키를 탐방함으로써 26개의 자매도시와 7개의 우호 협력도시를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부산문화의 저력을 확인하고 나아갈 길을 밝히는 ‘문화 돋보기 II’에서는 부산의 만화, 영화운동, 춤, 메세나, 문학비평, 연극 등에 이어 이번 호에는 유서 깊은 ‘부산의 노래’ 부문을 조명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들 장의 글들은 따로 모아 단행본으로 발간하여도 그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꺼이 지면을 빛내주신 필자와 논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말문을 열다’의 장에서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전성기 못지않은 열정을 불태우시는 연극배우 전성환님과 개성 있는 노래의 세계를 열어나가는 싱어송라이터 김인혜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청산 민예총이사장님께서서는 중진 무용가 하연화님의 예술세계를 정리해주셨습니다. 원로의 경륜과 중진의 원숙미 그리고 신진 예술가의 투지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지면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출신의 문화평론가 이택광 교수(경희대)가 ‘부산의 외래 문화’를 분석하는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소수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손을 잡다’의 장에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페스티벌’을 조명해주신 고윤정님, 각 장르별 평론을 기고해주신 비평가님들 모두 두루두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호의 별책부록에는 문화예술인들의 ‘책과 만나는 부산’이 마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라건대 새해에는 부산의 예술문화가 더욱 융성하길 기원합니다. 덧붙여 예술과 문화는 자율성의 토양 위에서만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가올 새봄에는 새 주간과 함께 한층 더 역량 있는 편집위원회가 꾸려질 것입니다. 『공감 그리고』의 건승과 아울러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참여가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054 page

완숙한 황혼이 아름답다
연극인 전성환
싱어송라이터 이내



104 page

2016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연극 〈옷이 옷다〉

부산의 자매도시를 찾아가다 ⑧



부산과 자매·우호협력도시 협정을 맺고 있는 도시들의 문화예술계를 조명하고 글로벌 도시 부산의 현주소를 살펴 본 '부산의 자매도시를 찾아가다'는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2년간의 연재를 마친다.



26
자매도시

가오슝 19호	바르셀로나 16호	로스엔젤레스 18호	시모노세키 20호	리우데자네이루 18호
블라디보스톡 20호	빅토리아 17호	상하이 17호	수라바야 19호	티후아나 22호
호치민 17호	웨스턴케이프주 22호	오클랜드 22호	발파라이소 20호	몬트리올 19호
이스탄불 17호	시카고 16호	두바이 22호	후쿠오카 18호	상트페테르부르크 18호
프놈펜 21호	카사블랑카 16호	뭄바이 19호	데살로니키 20호	세부 21호
양곤 21호				

7
우호협력도시

선전 23호 텐진 충칭 23호 오사카 16호 방콕 21호 나가사키 23호 베이징 23호

Shenzhen
선전

Chongqing
충칭

Beijing
베이징

Nagasaki
나가사키

문화 사막에서 유네스코 지정
디자인 창의도시로 변신한

선전

글·사진 리야오(李耀)
선전 OCT 현대미술센터 공공사업 기획자

선전(深圳)은 중국에서 가장 젊은 대도시다. 1980년 8월, 선전이 경제특구로 지정되고 36년이 흘렀다. 선전은 36년 만에 5만 인구가 거주하는 바오안현(宝安县)에서 1500만 인구를 품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 '작은 어촌 마을에서 대도시를 이룬 신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선전 Shenzhen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 선전

뉴중국 남부의 주강(珠江) 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선전은 동서남북 각 후이저우(惠州), 주하이(珠海)와 마카오, 홍콩, 둥관(東莞)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다. 산을 끼고 바다를 마주하며 녹지율이 매우 높은 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다. 사실 이 지역은 '문화 사막'의 오명을 받았던 곳이다. 도시의 짧은 역사로 인해 선전대학을 제외하고 자원의 부족 문제는 심각했다. 선전대학 역시 어느 정도 완전한 학과 체계가 세워져 있었지만, 현재까지 기술과 상과(商科)만 강세를 보였다. 선전대학 및 1980년대에 설립된 선전예술학교(주요 교육: 음악, 무용. 당시 교육받은 인물: 스타 피아니스트 윤디 리(李云迪))를 제외하고 고등 예술교육기관의 수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방면으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 설립된 대학과 연구기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문화기관 역시 자주적인 발전과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다.

1980년부터 최초의 경제특구로 선정된 후, 이곳 선전은 중국 도시화의 시범구가 되었다. 초기 진행한 공업·해운산업에서부터 최근 실시하



선전(중국) Shenzhen

홍콩 바로 북쪽에 위치하며 남중국해 연안을 따라 있다. 1979년 경제특구로 선포되었으며, 신흥도시인 선전은 도로·주택·학교·수력발전소·교통시설 등을 새로 건설했다. 선전은 다른 지역의 중국인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높은 임금과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 선전의 성공에 힘입어 중국 정부는 연안의 10여 개 도시들을 경제특구로 전환시켰다.



OCT 현대미술센터

고 있는 과학기술과 정보산업까지 선전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려진다. 십수 년 전, 미국 언론은 선전을 보도할 때 작업 라인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 사진과 함께 '세계의 공장'이라는 단어로 선전을 표현하였다. 현재 세계 무대로 진출한 선전은 '하드웨어의 성지', '디자인 창의도시'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2015년 4월, 세계 4,300개 경제특구를 조사한 결과,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선전을 '시범적인 성공을 보인 지역 NO.1'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선전은 중국개혁 개방의 상징이다. 30년 남짓한 짧은 역사를 지닌 신흥도시지만 중국에서 가장 많은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도시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엔날레 행사는 선전국제수목비엔날레, 선전국제조소비엔날레, 선전·홍콩도시건축비엔날레, 선전판화비엔날레, 선전독립애니메이션비엔날레, 선전·홍콩디자인비엔날레 등이 있다. 이러한 전시회의 전시 범위를 통해 우리는 선전의 문화 활동에 대한 포부와 '문화 사막'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는 선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주민이 많은 도시인 선전은 1,500만 인구 중, 기존 세대는 약 1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선전은 중국대륙에서 포용성이 높은 도시가 되었다.

경제특구에서 문화특구로 변화하는 선전

'선전에 살면 모두가 선전사람(人)'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심의 마음을 사로잡아 '포용'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있다. 최근 들어 선전의 유동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산계층 가정이 인구 안정화를 이루는 주요역량으로 손꼽히고 있다. 인구의 증가는 문화예술 수요의 상승을 의미한다. 중국 최초의 테마파크 세계지창(世界之窗)이 바로 이곳 선전에 조성되었다. 선전의 공공문화기관 역시 문화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주요기관으로는 푸톈구(福田區)의 푸톈구시민센터 및 주변 선전박물관(1988년개관), 선전시산업전시장, 구안산위에(關山月) 미술관(1997년개관) 등을 비롯하여 립후구(羅湖區)의 선전미술관 및 난산화치아오성(南山華僑城)의 허상닝(何香凝) 미술관(1997년개관), OCT 현대미술센터(2005년 설립)와 화(華)미술관(2008년) 등이 있다. 화치아오성(華僑城)은 선전의 메이저 개발단지 중 한 곳이다.

처음으로 정부의 지시로 진행된 허상닝미술관 설립을 시작으로 OCT현대미술센터와 화미술관의 창립을 지원 하는 등 관련 지역을 선전의 창조문화와 예술자원이 밀집된 지역이다. (선전콘서트홀, 선전 도서관, 시소년궁(市少年宮), 선전박물관 및 현재 건설 중인 현대



해상세계문화예술센터



Museum of Contemporary Art&Planning Exhibition

예술 겸 도시박물관이 있는 중앙문화구(中央文化區)는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 발전의 흐름에 따라 선전 시 정부는 최근 문화 건설 지원을 통해 ‘경제 특구’에서 ‘문화 특구’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고성장 경제 도시에게 문화 발전의 낙후는 필연적으로 종합적인 수준 향상에 장애물이 된다. 정부 정책의 지원 이외에도 인재 투입과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고, 문화환경 조성 역시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1998년 선전 국제수목화 비엔날레는 출범 후 현재까지 9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18년의 역사를 써 내려오고 있다. 더욱 큰 규모와 포부를 담고 있는 또 다른 비엔날레가 있다. 바로 선전홍콩 도시 건축 비엔날레다. 2005년 출범된 이후 5차례 성공적인 개최를 거둔 전시이다. 2017년 열릴 제6회 행사는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중국 농민 공들이 모여 살던 도시외곽의 성중촌(城中村, 도시 속 농촌이란 의미로 일종의 재개발 대상 구역)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이러한 전시는 전통 예술의 현대적 표현, 모든 문화를 반영하는 도시 분위기, 현대 사회의 종합적 문제를 막론하고 모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계에 전시 및 교류의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 영역에서의 대화와 실천의 기회이기도 하

다. 선전의 이주문화는 주류의 심미적 흥미나 예술 형식이 될 수 없지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며, 다차원적으로 새로운 문화가 탄생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표류와 포용력으로 키워가는 예술문화도시

2008년 선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디자인 창의도시’에 선정되었으며, 디자인을 도시 중점 문화 발전 영역에 편입시켰다. 이러한 배경 하에 즈아오상서커우(招商蛇口)그룹과 영국 국립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이 협력하여 ‘해상세계문화예술센터(海上世界文化藝術中心)’ 등과 같은 공공 문화기관을 출범시켰다. 디자인, 창의 산업의 심화와 확장으로 산업화 시대의 건축은 변화 및 기능의 전환을 이루고, 오래된 공장은 창의 단지 구역으로 바뀌어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최근에는 창의 단지의 발전과 더불어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육성단지가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제조’에서 ‘중국 창조’로의 전환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노력 하에 선전의 ‘창업 문화’는 이 지역 특색으로 자리 잡았다. 시드 Seed 스튜디오(공장형 제조기업)부터 차이후오(紫火) 메이커 스페이스 Chaihuo Maker Space까지 개발자들의 창의, 창업 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전의 인구 구조 단점은 최근 몇 년에 걸쳐 보완되고 있다. 1980~90년대 부모를 따라 선전으로 이주했거나 선전에서 태어나고 자란 ‘선전 2세대’는 현재 학업을 마치고 선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로 나가고 있다. 오늘날 물질의 번영을 추구하는 시대이자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배경 하에 외국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이 작지 않다. 그들 중 일부는 선전 문화의 정체성과 역사적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뿌리 깊은 본토 자원과 글로벌적인 시야에 힘입은 이들 노력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선전은 최근 3년 간 로컬 예술을 추구하는 새로운 화랑과 지방 문화 문제에 주목하는 비영리단체들이 등장했다. 그 중 ‘33 스페이스(33空間)’, ‘박스 아트스페이스(盒子藝術空間)’, ‘Handshake302(握手302)’ 등의 기관 및 단체들은 다차원적으로 선전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은 자신과 같은 또래 사람들은 모두 전쟁터로 뛰어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후대에게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그들의 후손에게 예술의 창조와 감상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선전의 사례는 이에 상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선전은 중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중국 포스트 산업화 시대에 있는 도시 사이에서 혼합되고 뒤섞인 ‘현대화’에 문화의 상상력을 제공하고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꿈과 이상을 찾는 젊은이들이 이상을 현실화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선전의 본 모습 속에는 ‘표류’의 성격도 존재한다. 이러한 성격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의 이동과 융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전의 ‘포용력’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선전의 특별한 에너지와 매력은 현재도 문화의 에너지 축적과 예술 환경 조성에 동력이 되고 선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深圳文艺观察(修订版)

文/李耀(深圳OCT当代艺术中心公共项目主管, 策划人)

深圳这座中国最年轻的都会城市, 自1980年8月正式成立, 至今已走过36年的历史。在这短短的36年里, 深圳从原本只有5万人口的宝安县发展成为拥有1500万人口的世界级城市, 早已被谱成诸如“从小渔村到大都会”的传奇闻名千世。深圳处千中国南端的珠江三角洲地区, 南邻香港、北接东莞、东毗惠州、西望珠海和澳门, 依山面海, 绿化覆盖率很高, 是一座非常宜居的城市。这里曾一度背着“文化沙漠”的骂名。由千过千短暂的历史, 使其高等教育资源极为稀缺, 仅有的一所本地高校“深圳大学”虽然已经拥有比较完整的学科体系, 但至今还是个以技术和商科见长的大学。除了深圳大学及早在20世纪80年代立校的深圳艺术学校(教学重点是音乐、舞蹈, 培养了著名钢琴家李云迪), 几乎没有别的高等艺术教育机构。这一问题在最近几年已有所改善。新创的大学与研究所得到了政府的大力扶持, 文化机构也拥有相对自由的空间和制度支持。自1980年成为中国的首个经济特区以来, 这里一直是中国城市化的试验田: 从早期的工业、航运到近年的科创与信息产业, 使得深圳被称为中国的“硅谷”。十几年前, 美国媒体报道深圳时的标签是“世界工厂”, 标准配图是流水线上的女工。现在, 出现在世界舞台上的深圳, 收获了“硬件天堂”、“设计之都”的美誉。2015年4月, 在盘点了全球4300个经济特区之后, 英国《经济学人》周刊把深圳形容为“若干成功典范中最突出的一个”。

深圳是中国改革开放的标志。作为一座只有三十余年历史的新兴城市, 深圳是全中国拥有双年展

数量最多的城市, 正在活跃中的双年展有: 深圳国际水墨双年展、深圳国际雕塑双年展、深圳香港城市建筑双年展、深圳版画双年展、深圳独立动画双年展、深港设计双年展等。从这些展览的覆盖范围, 我们可以看到深圳的文化抱负和它为了摆脱“文化沙漠”标签而做出的努力。

作为一座移民城市, 在深圳现今约1500万的人口, 本地居民的后裔仅占约100万。原住民占比低的后果, 反而使深圳成了中国大陆最具包容性的城市。“来了就是深圳人”作为深入民心的口号, 正反映了这个地方的包容特征。近年来, 深圳的流动人口已呈递减趋势, 不断增长的中产阶级家庭成了人口稳定化的中坚力量, 人口的增长意味着对文化艺术需求的上升。中国首座主题公园“世界之窗”最早从这里创立, 深圳的公共文化机构也正以加速度的方式猛增——从福田区市民中心及周边的有深圳博物馆(1988年开馆)、深圳市工业展览馆、关山月美术馆(1997年开馆), 到位于罗湖的深圳美术馆及南山华侨城的何香凝美术馆(1997年开馆)、OCT当代艺术中心(2005年创立)与华美术馆(2008年开馆)。华侨城作为深圳的龙头开发集团之一, 从最早受命托建国家级的何香凝美术馆, 到支持创办OCT当代艺术中心和华美术馆, 使得该片区成为除了中央文化区(集中了深圳音乐厅、深圳图书馆、市少年宫、深圳博物馆和筹建中的当代艺术兼城市规划展览馆)之外, 深圳创意文化与艺术资源最为密集的区域。

随着产业的升级, 深圳市政府近年来试图通过扶

植文化建设来探索变“经济特区”为“文化特区”。对千一座经济高度发达的城市而言, 文化发展的滞后必然成为其综合实力提升的瓶颈。除了需要上层政策的扶持外, 人才的引进和持续的投入都不可或缺, 文化生态的营造需要耗费许多代人的精力与才情。深圳国际水墨画双年展从1998年创办, 至今已成功举办9届, 走过了18年的历程。另一个规模与野心更大的双年展——深港城市建筑双年展, 自2005年创办以来, 也已成功举办了5届, 将千2017年举办的第6届更是突破性的将关注点定在了“城中村”——这一中国城市化进程中极为鲜明的空间载体上。这些展览, 无论是围绕传统艺术的现代转型探索, 还是关注泛文化的都市情境与当代的总体性问题, 都在实际上为文化艺术界提供了展示交流的平台, 也为各种跨领域的对话和行动创造了机遇。深圳的移民文化意味着它难有主流的审美趣味或艺术形式, 这也是它极具潜力的地方, 多元性意味着新的文化可以被孕生。

深圳在2008年获得联合国教科文组织授予的“设计之都”称号后, 就将设计作为关键的文化发展领域; 在此背景之下, 招商蛇口集团与英国国立维多利亚与艾伯特博物馆合作的“海上世界文化艺术中心”等公共文化机构应运而生。随着设计、创意产业的深化与拓展, 大量工业时代的建筑面临着改造与功能置换, 旧厂房改建创意园区由始遍地开花。与创意园区的爆发同步的, 是近年来为科创而设的种种孵化园。在“中国制造”向“中国智造”转变的努力中, 深圳的“创客文化”有着鲜明的本地色彩, 以“秒递”为首的科技公司及其首家创

客空间“柴火”都在为开发者的创造和创业提供服务。

深圳在人口结构上的短板在最近几年里开始得到弥补, 大批千上世纪80、90年代随父母迁居深圳, 或在深圳出生长大的“深二代”, 正在完成他们的学业并陆续返回这座与他们有着共生关系的城市。这些在物质繁荣时期成长起来的新一代普遍拥有高等学历背景, 在西方国家接受优质教育者占据了不低的比重。他们中的佼佼者开始致力千建立这座城市自己的文化身份与记忆认同。凭着深厚的本地资源与国际视野, 他们的表现值得期待。与此同时, 深圳在最近的三年中也出现了致力千推动本土艺术新势力的画廊和关注地方文化问题的非营利空间, 其中的“33空间”、“盒子艺术空间”和“握手302”等机构/团队都从不同的层面为活化深圳的文艺生态做出了努力。

美国的国父华盛顿曾说自己同辈人投身戎马生涯, 正是为了后代人能够致力千经济建设, 再以后的人可以进行艺术的创造与欣赏。深圳的例子很好地印证了这一过程推演。深圳这座中国最年轻的城市为中国后工业时代都市中混搭、杂糅的“现代性”提供着文化的想象力和模本。也由此为各种追求梦想的年轻人创造了实现理想的机会与可能。深圳的基因里携带着的漂泊气质, 使其需要移植和嫁接各种歧异的文脉资源, 正是同样的原因赋予了这座城市别处无法比拟的包容度——这种特有的能量与魅力, 推动了其文化能量的积聚和艺术生态的培植, 也塑造着这座城市的未来。

표류하는 예술의 도시 충칭

글·사진 니쿤(倪昆)
Qi House 비영리창작공간 운영

충칭은 신도시이다. 충칭의 모든 것들이 신도시와 연관되어 있고 욕망, 희망, 야망으로 둘러 싸여 있는 지역이다. 물질주의와 함께 자아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이상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충칭은 중국 국내의 우수한 창작 미술 단체, 중국 국내 주요 독립 미술기관, 우수한 미술작가, 기획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속 미술의 수요와 이해, 전문가 계층의 진행과 요구, 중간단계에서의 균열로 타협하는 모습은 보기 드물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희소식도 있다. 균열이 나타난 상황 속에서 그 허점을 통해 전문적인 사업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충칭 Chongqing



충칭 예술의 시발점, 쓰촨미술대학

중국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충칭(重慶)은 1997년 이후 서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직할시로 선정되었다. 1997년 이전, 쓰촨성(四川省)에 속해 있었던 충칭은 충, 대포 등과 같은 재래식 무기 군수산업과 오토바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업 도시였으며 제철소,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산업 및 제련이 이 지역의 주력 산업이었다. 지리적으로 창장(長江) 중상류지역에 속하고 창장과 지아링장(嘉陵江) 합류 지점에 위치해 있어 예부터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1937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의 국민정부의 수도였는데 1946년, 항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충칭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충칭 사람들은 역사적 문화의 뿌리를 말할 때, '제2의 수도'를 뜻하는 배도문화(陪都文化)와 교역문화를 강조하곤 한다.

이주민 도시인 충칭은 100년 동안 세 차례의 대규모 이주가 있었다. 첫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국민정부가 충칭에



충칭(중국) Chongqing

중국 남서부에서 으뜸가는 하항이자 공업 중심지로, 반도 모양으로 튀어나온 바위산을 깎아 세운 도시로 1927년 충칭 시가 되었다. 1876년 개항되었으며,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외국과의 통상항구로 개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국민정부의 수도가 되기도 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로부터 옮겨가 있기도 했다. 동부지역의 교역과 교통의 중심지이다.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충칭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다. 두 번째는 1960~70년대 냉전체제 속에서 마오쩌둥(毛泽东) 주석이 미국 소련의 군사 공격에 대비해 '제3선 건설'을 추진하며 중국 경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업시설 이전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생산력 배치를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시킨 전략적인 조정이었으며 남서, 북서에 산업시설 이전을 진행하였다. 충칭 역시 서부 지역의 중점 도시가 되었다. 세 번째는 1997년 이후, 충칭이 직할시로 거듭나면서 중국에서 새로운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고 도시 규모 확대와 발전은 약 20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도 대규모 인구의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충칭의 역사적 배경으로 충칭 사람들의 성격이 강직하고, 낙관적이며, 행동력이 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충칭의 블루칼라 종사자들의 열정도 느낄 수 있다.

충칭예술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쓰촨미술대학(四川美術學院)이다. 1940년 설립된 쓰촨미술대학은 중국 8대

미술 교육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2개 캠퍼스는 현재 각각 지우룽포구(九龍坡區) 황쥬핑정가(黃桷)와 샹핑바구(沙坪壩區) 후시(虎溪)에 위치해 있다. 쓰촨미술대학 전 총장 뤼중리(羅中立)화백의 유명세는 쓰촨미술대학이 전국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시발점이 된다. 1980년 뤼중리(羅中立)화백의 유화작품 '부친(父親)'은 중국의 중요한 공공문화작품 중 하나이며 이 작품은 80년대 중국의 '문화기억'과 '집단기억'으로 불리고 있다. 뤼중리 화백은 중국 개혁 개방 이후 등장한 대학생 집단(77·78학번) 중 일원으로 처음으로 대중 시야에 맞춰 활동한 미술작가 중 한 사람이다. 뤼중리 화백의 성공으로 쓰촨미술대학은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쓰촨미술대학의 유화학과 역시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유화학과 중 하나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쓰촨미술대학을 졸업한 미술가들은 중국 미술 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3년, 중국 현대미술시장이 호황기의 급물살을 타면서 쓰촨미술대학 출신인 또

쓰촨미술대학 www.scfai.edu.cn



한 명의 스타 미술작가 장샤오강(張曉剛)이 등장한다. 그의 작품 '대가정(大家庭)' 시리즈는 중국 현대미술에서 매우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작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휘증리와 장샤오강 두 사람 모두 77·78학번으로 그들의 작품 속에 문화혁명의 경험 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술작가 선배들의 성공과 비교했을 때, 차세대 미술가들은 미술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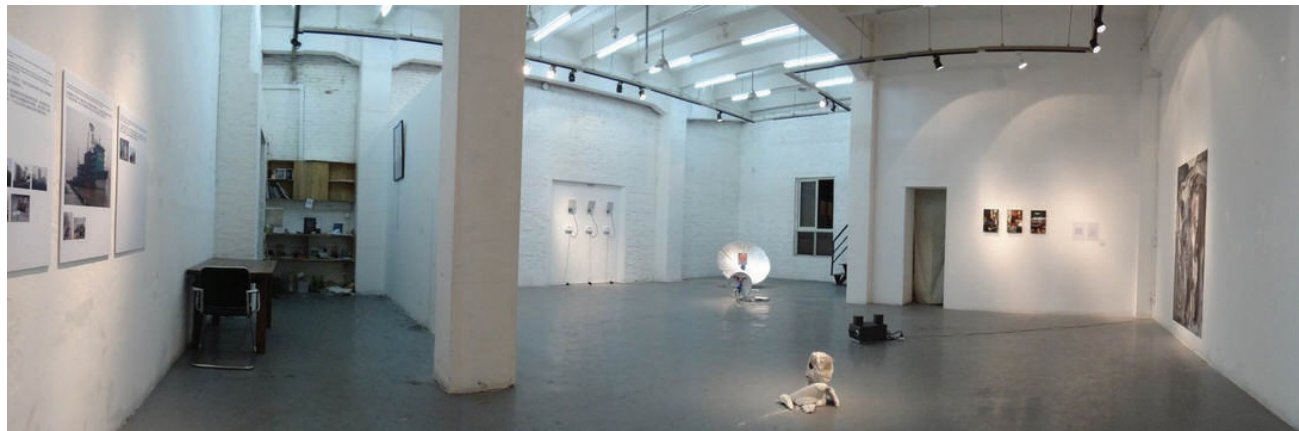
중국 현대미술의 중심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로 거의 모든 미술 자본이나 갤러리가 이 두 도시에 밀집해 있었고 충칭, 항조우(杭州), 청두(成都) 세 지역은 현대 미술의 2급 도시에 해당하였다. 2급 도시는 사실 미술가나 미술대학만 있을 뿐 상업 미술의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다. 2003년 미술시장 호황기 이후, '카툰 1세대'가 등장하며 수많은 젊은 미술가가 일본 만화의 영향을 받은 회화 작품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는 쓰촨 미술대학 출신의 젊은 작가들도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교육기관 출신의 미술 작가들이 중국 현대 미술에서 보이는 추세로 유행과 흐름에 따라 등장했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충칭 현대미술의 힘, Organhaus Art Space

2006년, 황제핑(黄桷)에 설립된 Organhaus Art

Space는 최근 10년간 충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대미술 기관이다. (Organhaus는 미술가의 주요 자영업체 중 한 곳 이다.) Organhaus 창립 초기에 두 가지 기본 운영 방향을 확정 지었는데 그것은 바로 '해외미술가의 체류와 실험 정신의 미술 강조'이다. 미술작가 양수(楊)와 기획자 니쿤(倪昆)의 공동 주관으로 설립된 Organhaus는 10년의 작업 과정에서 도시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본 기관의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다. 'Organhaus International artist workshop'은 Organhaus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해외 미술작가단체와 중국 미술작가단체로 나누어져 2주 동안 지역조사, 미술 강연, 지역 작품, 인터뷰, 공개전시회 등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Workshop'행사의 의제는 미디어 화제 및 도시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2008년부터 매년 가을에 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Organhaus는 2012년부터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Gallery SOAP(기타큐슈), C&G Artpartment(홍콩)와 장기적으로 협력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2015년에는 Gallery SOAP 기관과 공동으로 'Hotel Asia Project'를 출범시켰다. 이 행사는 '여행 중 차이화(差異化) 대화에 관한 미술 프로젝트(旅行中的強調差異化對話的藝術項目)'로 참가 도시의 미술 기관, 기획자, 지역 미술가들을 초대하고 있다. 또한 매

Organhaus 전시장 www.organhaus.com



1. Organhaus art sapce

2. The calyx museum of contemporary art

년 개최될 때마다 아시아 협력 도시를 추가할 예정이다. 금년 행사에는 기타큐슈, 허페이(合肥), 상하이, 방콕, 도쿄의 관련 기관과 대학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Organhaus는 중국 최초로 해외 미술 작가체류 프로젝트를 실시한 기관 중 한 곳이며, 유럽의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및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이란과 지속적인 미술작가 체류 프로젝트 협력을 맺고 있다.

2005년 전후, 창의산업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도시 발전 정책이 되었다. 2006년, 충칭 황제핑 지역에 미술의 거리가 새롭게 등장하였고, 구청은 관련 거리에 페인팅 작업을 진행하여 미술이 숨쉬는 황제핑거리로 만들었다. Organhaus이 자리한 이곳은 충칭이 최초로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미술구 - 501 미술기지(藝術基地)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는 소액의 주택보조금 등과 같은 형식으로 작업실 및 기관 내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충칭의 미술구가 호황기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이 '문화창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미술단지를 만들었다. 이들의 등장 배경 역시 중국의 도시화 실현에서부터 시작된다. 문화와 창의적인 경제 발전을 통

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 내수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링(鹅岭) 제2 인쇄공장문창공원, 마오얼스(茅)문화창의산업원, N18LOFT 창의산업원 등과 같은 지역이 있었지만 충칭은 블루칼라 종사자 계층 이주를 이루는 도시였기 때문에 창조성과 디자인이 요구되는 문화 콘텐츠에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이 도시에는 현대 유명 미술작가 집단이 있었지만, 도시 자체가 이러한 미술가들의 작업을 흡수하고 소화할 수 없었다. 미술가들은 상업적 협력을 위해 종종 상하이 진입을 생각하거나 베이징 화랑을 찾기도 하였다.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 자원의 부족은 고스란히 문화 미술 단지의 콘텐츠 부족으로 이어졌고 장식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던 디자인은 미술 산업에 충분한 활력을 불어 넣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산업의 도시 사업 관리자는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내려 놓을 때가 부지기수였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창조형 미술기관들은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 관리자와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자금이 흘러들어 가기 일쑤였다.



Organhaus international artist workshop

협력과 마찰 속에서 성장하는 충칭 예술의 미래

2015년,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도시로 알려진 충칭은 도시의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였고, 중국 정부 역시 다시금 문화 미술의 수요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다. 2009년 새로 설립된 귀타이미술센터(國泰藝術中心)와 충칭미술관이 충칭에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 미술관의 관리 시스템은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미술가협회의 체계였기 때문에 대중을 위한 비전문적인 미술 센터가 설립되었다. 민영 미술관 건설은 큰 발전을 거두었고 체인점 형식의 상하이 롱미술관(Long Museum) 분관이 충칭에 세워졌다. 민영기업과 구청의 공동 추진으로 더 많은 미술관이 설립되었는데 예를 들면, 2012년 설립된 창장후이현대미술관(滄江匯當代美術館), 2015년 설립된 싱후이현대미술관(星匯當代美術館) 등이 있다. 토지 매매상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미술관도 존재하는데 토지매수 형식으로 미술관을 매입한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토지 매수 완성단계 이후 문을 닫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생겨 실질적인 미술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싱후이현대미술관은 Organhaus 콘텐츠 생산 담당 팀을 초청하여 전문적인 미술관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술관이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창장현대미술관은 현대 미술을 추구하였지만, 미술관의 상부가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아 관리자가 어떠한 요구를 해도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였고 정부와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전시 사업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뒤엉켜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2, 3급 미술 도시에서 흔한 일이었다. 2015년 3월 창립한 LP미술공간(LP art space)의 경우, 전문성이 비교적 높은 미술 기관으로 충칭지에광베이(解放碑)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도시 중심지로 도시화 관련 국제 포럼, 젊은 층을 위한 문화 미술사업, 도시 및 농촌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들어 비영리 미술 기관의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충칭에서 시작된 미술제는 대부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업이다. 중국 국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민간 주최의 중국 독립영화전인 충칭민간영화교류전(CIFVF, 2012~2013)은 영화 이데올로기 비평 문제로 강제 종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장기적인 미술제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이와 어긋나게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문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고, 심사 및 부서 자체 검열에서 탈락되지만 얹게 하여 미술제는 축제 형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2010년, 충칭의 첫 번째 비엔날레 사업인 제1회 충칭청년비엔날레가 개최되었다. 기획 의도를 살펴보면 청년미술을 토론 주제로 한 대상 선택

은 좋았지만 전시회 담당 부서가정부 문화기구와 대학에서 투입되었던 이유로 이 비엔날레는 대학에서 주최하는 학생 사업이 되어 버렸다. 이 밖에도 매년 6월 대학 졸업 시즌에 맞춰 쓰촨미술대학에서 주최하는 '개방의 6월' 졸업전시회가 열린다. 많은 시민이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행사에서 역시 문제점이 나타났다. 바로 축제형 미술 활동으로 인해 미성숙한 미술가의 표층적 시각을 대중에게 제공하게 되고, 기존 작품에서도 도시미학 교육 부족이 드러나 현대미술을 정의하는 허구의 이미지와 시민들의 상상이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충칭이 2급 도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미술과의 연계 부족으로 나타난 치명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충칭은 신도시이다. 충칭의 모든 것들이 신도시와 연관되어 있고 욕망, 희망, 야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다. 물질주의와 함께 자아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이상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와 미술은 언제나 양념 역할을 하였고 필요하지만 중시되지 못하였고 가능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였다. 현존하는 거대 도시는 큰 규모로 기존의 미술현장을 수용하였고, 정부 측면에서의 문화 창조산업 강화로 적지 않은 민간자본이 관련 산업에 투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충칭은 중국 국내의 우수한 창작 미술 단체, 중국 국내 주요 독립 미술기관, 우수한 미술작가, 기획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속 미술의 수요와 이해, 전문가 계층의 진행과 요구, 중간단계에서의 균열로 타협하는 모습은 보기 드물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자본 유입 혹은 가시적인 이익 추구, 문화와 미술의 호황 등은 겉모습에 불과하다. 하지만 희소식도 있다. 균열이 나타난 상황 속에서 그 허점을 통해 전문적인 사업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력과 끊임없는 마찰이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전문 관리 및 행정 부서가 점점 더 증가하여 전문적인 미술기관이 나날이 발전하기를 바라본다.

Organhaus guest studio



重庆，一座一直和艺术保持游离状态的城市

倪昆

重庆地处中国西南部，因为中央政府的西部经济大开发的需要，1997年成为最年轻的直辖市，1997年之前，重庆隶属千四川省，工业方面，以军工企业、制造业为主，比如说枪炮等常规武器的制造、摩托车汽车的制造生产，钢铁厂电厂等能源和冶炼企业也是重要的组成板块，同时，又因为地处长江中上游，长江和嘉陵江两江汇流千此处，河道运输也让重庆成为重要的航运码头。在近代历史上，重庆被称为陪都，二战期间，国民党南京政府自1937年临时迁都千此，1946年对日战争取得胜利后迁回。也因此，重庆人在描述来自历史部分的文化基因时，陪都文化，码头文化，一直是他们自身强调的内容。

重庆是一座移民城市，在最近的100年内，明显的大面积移民有3次，首次移民发生在二战期间，伴随着国民党临时政府的成立，一大批国家精英迁居千此。第二次移民发生在上世纪60-70年代的冷战背景之下，为了应对和当时苏联美国的紧张关系，毛泽东提出了搞三线建设，它是中国经济史上极大规模的一次工业大迁移，是生产力布局的一次由东向西转移的战略大调整，建设的重点在西南、西北，重庆是其中的重点城市。第三次移民发生在1997年之后，伴随着直辖市的城市，重庆在中国获得了新的城市地位，城市的扩容和发展，在近20年间快速进行。大批新居民的

迁入，也在不断的塑造着重庆这座城市的性格。由此，也不难理解重庆人性格里的耿直，乐观，行动力强，整座城市也充满着蓝领气质。谈到重庆的艺术，就离不开谈论四川美术学院，学院成立千1940年，是中国最著名的8所美术学院之一。四川美术学院目前有新老两大校区，老校区地处九龙坡区黄桷坪正街，新校区地处沙坪坝区虎溪。四川美术学院第一次获得全国性的声誉离不开退休院长，艺术家罗中立在1980年创作的油画《父亲》，它是中国最重要的公共文化图像之一，也被公认为中国80年代的集体文化记忆。罗中立是中国改革开放后的第一批大学生（通称为77，78级），也是首批进入大众视野的艺术家。罗中立的成功带动了四川美术学院在全国的影响，四川美术学院的油画专业，也成为中国最好的油画专业之一。在随后的几十年中，毕业千四川美术馆学院的艺术家们一直活跃千中国的艺术现场，2003年，中国当代艺术市场迎来大爆发期，张晓刚成为另外一位同样来自千四川美术学院的艺术明星，他的《大家庭》系列，是当前中国当代艺术里最昂贵的绘画作品之一，巧合的是，两位艺术家都毕业千77，78级，作品都和他们的文革经验有关。相对千千这些前辈们的巨大成功，新一代的艺术家们在艺术市场上的活跃度则要低迷一些，一方面，中国的当代艺术中心城市是北京，上海，艺术资本，画廊几乎都汇集在这两个城市，

重庆，杭州，成都被称为当代艺术的二线城市，一个很重要的原因是，二线城市只存在艺术家或艺术大学而没有艺术商业体系。在艺术市场兴起的2003年之后，曾经短暂的出现了“卡通一代”潮流，一大批年轻的艺术家创造了受日本漫画影响的卡通风格的绘画，其中，来自四川美术学院的年轻艺术家就占了很大的比例，这是最近的一次以学院为代表的艺术家群体在中国当代艺术里的亮相，只是这种风潮很快就被新的流行趋势所替代，一大批艺术家为昙花一现角色。

2006年，Organhaus Art Space (器·Haus空间)在黄桷坪成立，作为近10年来重庆最活跃也最重要的当代艺术机构(注，Organhaus也是中国当前最重要的艺术家自营机构之一)，Organhaus在成立之初，就确定了两个基本方向，国际艺术家驻留和实验性艺术的强调。机构由艺术家杨述和策展人倪昆共同创办，在10年的工作中，关于城市化的讨论，是机构比较明显的特点。Organhaus的重点项目有“Organhaus国际艺术家工作坊”，一半来自国际的艺术家和一半来自中国的艺术家，在2周的时间里，进行包括在地考察／艺术家讲座／在地创作／采访对话／公开展示等在内的活动，工作坊的议题通常和媒介讨论及城市化有关，2008年开始，基本上是在每年的秋天举办。Organhaus在2012年开始，明确提出要加强和和亚洲城市的互动合作，北九州(日本)的替代空间Gallery

Soap，香港的C&G艺术单位，都是他们的长期合作伙伴。2015年，和Gallery Soap共同启动了“Hotel Asia Project”，它是一项旅行中的强调差异化对话的艺术项目，每个参加城市的艺术机构，策展人，当地艺术家都有邀请参与，每年一届，预计每年新增一座新的亚洲合作城市，今年有北九州，合肥，上海，曼谷，东京的机构、大学参加。Organhaus也是中国最早开展国际艺术家驻留项目的机构之一，其中，欧洲的德国，英国，奥地利，荷兰，亚洲的澳大利亚，日本，伊朗，有着长期和稳定驻留项目合作。

2005年前后，为了提高城市竞争力，创意产业成为新的来自国家层面的城市发展政策，2006年，重庆的第一个艺术街区在黄桷坪出现，区政府将整个街区绘制成为涂鸦街，以象征着艺术在这个街区的存在。Organhaus所在地也是重庆最早被政府挂牌的艺术区—501艺术基地，政府通过小额的房租补贴等政策给予入驻艺术家工作室、机构以资助。2015年，重庆迎来了艺术区的井喷，一大群以“文化创意”为名义的新的艺术区成立，他们出现的背景也伴随着当前中国强烈的城市转型之心情，期待通过文化和创意型经济的发展来提升和激活城市，拉动内需。鹅岭印刷二厂文创公园，喵儿石文化创意产业园，N18LOFT小院创意产业园等，一个问题在千重庆作为一座以蓝领阶层为主体的城市，创造性和设计性的文化内容一

直不是强项,当然,这座城市有非常好的当代艺术家群体,但是城市自身却没有能力吸收和消化这些艺术家的工作,艺术家和商业的合作,也通常会考虑上海,北京的画廊等。内部文创资源的匮乏会造成这些园区内容上的匮乏,通常也只能够强调在装饰装潢上的设计感,很难真正让它成为一个产业活起来。再加上主管这些方向的城市管理者通常都是非专业背景,这会让一些大的决策显得更加的不切实际,真正有需求的创造型单位往往无法获取资助,资助一般都流向了懂得和管理者沟通的人士,即使是一些不切实际的项目。

2015年的重庆,已经被称为是世界上最大的内陆城市,城市的极剧发展,对千文化艺术的需求,也再一次被政府所强调。2009年新建的国泰艺术中心,重庆美术馆坐落千此,由千美术馆的管理系统为政府的美协体系,本该充当城市美术馆的重庆美术馆,实际上沦为了一个针对大众的非专业性的艺术中心。民营美术馆的建设要蓬勃很多,有连锁型的上海龙美术馆在重庆的分馆,当然,更多的还是民营企业和区政府合作的美术馆,比如说2012年成立的长江汇当代艺术中心,2015年成立的星汇当代美术馆。当然,由地产商独资创办的美术馆一直都有,但是基千地产销售而成立的美术馆,往往在完成阶段性地产销售之后而关闭或者转型,所以也不具备实质的建设性。相对而

言,因为星汇当代美术馆是邀请Organhaus的工作团队在负责内容生产,美术馆的建设一直是按照专业美术馆在打造,虽然时间不长,还是比较受到关注。长江汇当代艺术中心的方向也和当代艺术有关,但是美术馆操作团队的不专业,管理者的诉求也更多的考虑和政府间的互动,所以展览项目良莠不齐,类似的情况,在二三线艺术城市而言,应该也算是常态。另外,2015年3月创办的LP艺术空间,也算是一个专业程度颇高的艺术机构,机构地处解放碑,重庆的城市中心地带,立足千城市化的国际讨论,艺术项目比较关注青年文化,城市和乡村等议题,是近来在重庆比较活跃的非营利性艺术机构。

发生在重庆的艺术节,几乎都需要来自政府的许可,曾经在国内比较有影响的由民间举办的中国独立电影展—重庆民间映画交流展(CIFVF, 2012-2013),也因为影展涉及的意识形态问题而被迫关闭。这种来自民间的长期性艺术节基本上不具备自我发展的空间,与此错位的情况是,由政府所推动的相关项目,则因为专业性无法获得重视,同时也以为避免审查或者组织方面的自我审查,艺术节变成了嘉年华。2010年,重庆的第一个双年展项目—第一届重庆青年美术双年展举办,就策展概念来说,以“青年艺术”为讨论点本身还是很好的一个对象,但是由于千展览的组织方来自政府文化机构,大学系统,这个双年展已经沦为了在

大学里举办的学生项目。另外,每年6月的大学毕业季,四川美术学院举办“开放的六月”毕业展季,吸引大量的市民前往观看,但是问题也恰好在千,这种嘉年华性质的艺术活动,提供给公众一直不成熟艺术家的表层视觉,在原本就严重缺失的城市美学教育的背景下,制造了一种关于什么是当代艺术图像的假象和市民积极参加的幻觉,是非常糟糕的事情。这从某种意义上也解释了,为什么重庆一直只是二线艺术城市,艺术链条的缺失是致命的后果。

重庆是一座新城,所有和超级新城有关的,和欲望希望野心有关的城市气质,都可以在这里找到,对千金钱的追逐伴随着自我价值实现的全部理想,文化和艺术一直都是调味剂,需要但不重视,可以但不必须。超级城市的体量容纳了目前已有的艺术现场,而随着来自政府层面的关于文创产业的重视,不少的民间资金也加入到这种建设。同时,重庆有着在全国都非常好的艺术家创作群体,有着在全国都非常重要的独立艺术机构,有优秀的艺术家,策展人,但是来自城市的关于艺术的需求和理解,和来自专业圈层的操作和要求,中间的裂痕巨大,几乎很少看到彼此调和的迹象。资本的注入还是在追逐可见的利益,文化和艺术的热闹,也就只是表象。当然,好的情况是,在此裂痕中,可以发现和找寻到一些缝隙来实施一些专业项目,也希望在彼此的合作和不断碰撞中,专业管理和行政团队可以越来越多,专业艺术机构可以越来越好。

Beijing

황폐한 공장에 일군
798예술구의 명성

베이징

글·사진 김창희
C5 ART CENTER 오퍼레이션 디렉터



베이징 Beijing



2003년 미국 주간지 <타임>지는 가장 높은 문화 상징성을 띤 세계 22개 도시예술센터에 798예술구를 포함시켰고, <뉴스위크>지도 같은 해 세계적인 도시 12곳에 베이징을 선정했다. 다음 해 미국 <포춘>지는 세계에서 발전성이 있는 도시 20곳을 선정했는데 베이징도 그 한 곳이었다. 이처럼 베이징이 세계 유수의 잡지로부터 인정받은 이유 중 하나는 798예술구가 황폐한 옛 공장구역으로부터 문화구역으로 변화한 사실 때문이다.

신 중국 공업화의 요람에서 베이징 예술의 동지로

1950년대 초 3개의 대형 공장이 베이징 동쪽 지금의 798지역에 건설되었는데, 이는 소련 주도의 156, 157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동독이 설계와 건축을 맡아 지어진 국영 공업단지로 신 중국 공업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곳이다. 건물들은 아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독일의 전형적인 바우하우스 양식 **Bauhaus Style**으로 지어졌으며, 대부분 기자재는 동독일에서 출발한 시베리아 철도 **Trans-Siberian Railroad**를 타고 소련을 관통해 베이징으로 운송되었다. '718연합장'이라 불리



베이징(중국) Beijing

베이징은 과거 8세기 이상을 중국 역사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왔다. 2,000년 훨씬 이전에 지금의 베이징 부근은 이미 중국 동북부 국경지대의 중요한 군사·교역 중심지였다. 원대(元代)인 1267년 이곳에 대도라는 이름의 신도시가 건설되어 행정수도가 되었다. 그후 베이징은 명(明)의 1·2대 황제 재위기간과 국민정부 부가 난징을 다시 수도로 삼았던 짧은 기간을 빼고는 계속 수도의 지위를 지켜왔다.

던 대형 공장에서는 전기 튜브, 자동 변압기, 라디오 전기 부품 등 군수 물품에 필요한 전기 제품을 주로 생산하였으며, 1960년대 반부터는 700, 706, 707, 718, 797, 798로 세분화되어 발전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번호로 건물의 이름을 대신했다. 그 후 1990년대 말 공장 철거가 계획될 때 마지막까지 남은 공장의 번호가 798이었다. 여기서 중국 최초의 원자탄과 인공위성의 핵심적 부품이나 부속품이 생산되는 등 이곳은 신 중국 전자공업의 요람이라고 불리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 운영 정책이 유입되었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공장들은 문을 닫게 되었다. 약 10여 년간 방치되었던 빈 공장에 1990년대 말부터 예술가들이 동지를 틀기 시작한다.

중국미술학원, 노신미술학원과 함께 중국의 3대 미술학원 중 하나인 중앙미술학원은 1995년 706부지에 조각 등 공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위해 스튜디오를 마련한다. 2000년 중앙미술학원 조각과 교수 수이지엔궈(隋建国)를 시작으로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빈 공장 지대로 작가들의 작업실이 하나 둘 유입되었다. 2001년에는 디자이너 '런칭(林菁)', 출판업자 '홍황(洪晃)', 음악가 리우쑤어라 등이 잇따라 거주지를 이곳 공장으로 옮겨왔다. 같은 해, 798부지에 해외의 자본도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미술 전문 서점 및 카페를 운영하는 로버트 버넬 **Robert Bernell**이었다. 중국 동시대 예술을 선도한 주요 예술가인 황루이(黄锐), 창신(苍鑫), 바이이루어(白宜落), 천린양(陈羚羊)도 본격적으로 798에 작업실을 만들었다.

중앙미술학원



798예술구





798예술구



세계가 인정한 베이징 문화 1번지, 798예술구

일본 동경 화랑의 베이징도쿄프로젝트BTAP 공간은 798에 처음으로 문을 연 화랑으로 2002년 말 BTAP의 개막전은 798에 예술 전시의 포문을 연 전시였다.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 798에는 많은 화랑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더불어 작가 작업실, 음식점, 주점, 기념품점 등 다양한 상점들이 함께 오픈했다. 798은 자연스럽게 수백 명의 예술가, 디자이너, 광고주, 출판가 교류의 장이 되었다. 2003년 4월 13일, 1,200m²에 달하는 가장 큰 부지를 소유한 황루이와 쉬용이 주도한 DIAF--Dashanzi International Art Festival 798행사는 군수 공장이었던 798과 다산뜨DAD-Dashanzi Art District 지역을 예술문화공동체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2003년 미국 주간지 <타임>지는 가장 높은 문화 상징성을 띤 세계 22개 도시예술센터 선정에 798예술구를 포함했고, <뉴스위크>지도 같은 해 12강 세계도시 선정에 베이징을 포함시켰다. 다음 해 미국 <포춘>지는 세계에서 발전성이 있는 도시 20곳을 선정했는데 베이징이 그 중 하나에 당선되었다. 이상의 세계 유명 잡지에 베이징이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798예술

구가 황폐한 옛 공장구역으로부터 문화구역으로 변화한 사실 때문이다. 또한 주 정부가 주관하는 중국 베이징 국제문화 창조 기업 박람회에서 798예술구는 '중국 최고 창의적 공원' 상을 2006~2007년 2회 연속 수상했다. 독일 슈뢰더 전 총리, 유럽 집행위원회 바로소 의장, 프랑스 시라크 전 대통령,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국제 올림픽위원회 자크 로게 위원장 등 해외 유명 인사들도 798에 방문하였으며, 글로벌 브랜드 NIKE, SONY, DIOR, CK, BMW, BENZ, SAMSUNG, Marc Jacobs 등도 자신 제품의 런칭 장소 및 홍보행사 장소로 이곳을 택했다.

상업화에 관광지로 전략한 798예술구의 현주소

하지만 최근 798예술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다산뜨는 엄청난 국가적 재원과 정책을 통해 만들어진 세계의 다른 예술도시와는 다르게 황폐한 옛 공장구역으로부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적 상징성이 농후한 예술지역으로 바뀐 곳이다. 전 세계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798 일대는 정부의 문화 창작의 상업 집중구로 지정되어 베이징 시와 차오양구는 정부 차원에서 약 230,000m² 크기의 798에 약 400여 개의 문

화기구를 5개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설립, 관리하고 있다. 특히 798예술구 안에 건설관리 사무실을 설립하고 '조율, 서비스, 인도, 관리'를 목표로 예술구의 문화 창의 산업 발전을 추진하여 왔지만, 특히 관광지역으로 주목받으면서 술집, 카페, 음식점, 기념품점 등 소비 오락시설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겨났다. 이에 따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곳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면서부터 관광객의 유입이 관광산업의 호황을 불러왔지만 갑작스럽게 물려드는 인파로 인해 대중교통, 도로, 화장실, 휴식 공간 등 공공시설의 관리가 잘되지 않아 예술구의 미적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무엇보다 무분별한 상업 공간 위주의 임대료 인해,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자본의 경쟁력에 뒤처진 많은 화랑은 점차 이곳을 떠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2002년 초부터 물밀듯 들어오는 화랑들로 인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했던 가난한 배경의 예술가들은 798지역 근처인 차오창띠, 환티에, 이치아오에 둥지를 틀어 또 다른 형태의 예술구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798의 상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그 근처 작업실 또한 2017년 초 철거 실행계획이 떨어진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16년 798에는 약 400개의 중국 내외의 예술기구 및 문화기업이 있으며, 화랑을 포함한 예술 전문기구는 그중 약 100여 개가 채 못 된다.



일본 개항과 국제교류의 원조 나가사키

글·사진 박창희
스토리 랩 '수작' 대표

일본 최초의 개항지(1570년), 전국적 쇄국정책 속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 상관을 인정했던 국제도시, 일본의 난학(蘭學·네덜란드 학문)과 외국어 학습의 장, 일본 혁신과 세계화의 원조 도시, 메이지 유신의 맹아가 싹틔던 곳, 가톨릭 전통이 강한 도시, 원폭의 상흔을 안은 도시... 그곳이 바로 나가사키이다.





나가사키 Nagasaki

부산과 닮은 일본의 근현대사가 응축된 국제도시

나가사키(長崎) 시는 일본을 들여다보는 창구 같은 도시다. 인구 45만 명에 신칸센조차 통하지 않는 지방 소도시라고 가볍게 봐선 안 된다. 나가사키에는 역사와 문화, 예술, 종교, 정치, 과학과 기술, 해양교류, 혁명과 사랑 그리고 전쟁과 폭력 등 파란만장한 일본의 근현대사가 응축되어 있다. 리아스식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멋진 야경, 그리고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의 무대가 바로 나가사키다. 이런 도시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 그야말로 다문화 도시요 국제도시다. 나가사키 여행은 양파껍질 벗기듯 이 도시가 감춘 역사와 문화, 전통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묘미다. 나가사키를 돌아다니다 보면, 일본의 실체와 저력을 확인하게 되고, 그게 종래 무서움이란 걸 알게 된다. 이 도시가 부산과 여러모로 닮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쇄국과 개항의 역사가 그렇고, 국제도시라는 면모 또한 그렇다.



나가사키(일본) Nagasaki

규슈의 가장 서쪽에 있는 나가사키 현의 중심 도시인 나가사키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나사야마 전망대에서 본 항구의 모습은 일본의 3대 야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인 곳으로 중국과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당시의 이국적인 정서가 흐르고 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이어 두 번째 원자 폭탄이 투하된 아픔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데지마 안내하는 현대판 사무라이

부산시와 나가사키현은 2014년 3월 상호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두 도시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나가사키현의 외딴 섬 대마도와 부산의 거리는 불과 49.5km다. 두 지역의 자치단체 교류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6년 쓰시마 시와 영도구가 자매결연을 맺었고, 1992년부터는 매년 한일 해협 연안 현·시도 교류 지사 회의를 통해 교류하고 있다. 2011년에는 나가사키현 미술관과 부산시립미술관이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2013년에는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이 부산박물관의 협조를 얻어 '쓰시마번과 조선통신사' 특별전시를 열기도 했다. 두 지역은 한일 공동으로 '조선통신사'를 유네스코 세계 기억 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은 과거 조선통신사의 출항지였으며 나가사키 현의 대마도는 통신사가 일본에 가장 먼저 발을 디뎠던 기항지였다. 나가사키는 규슈 최대 도시 후쿠오카에서 서남쪽으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다. 보이는 산지마다 삼나무가 빼곡한 것을 빼고는 차창 밖 분위기가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곳도 사계절이 뚜렷하고 일교차가 적어 활동하기도 좋다. 도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노면전차다. 레트로(회고) 나가사키! 근대화의 산물인 전차를 불러내 대중교통으로 이용

하면서 관광상품화 한 것이다. 부산에도 1960년대까지 전차가 다녔다. 하지만 남은 건 시·중점지의 안내판뿐. 동아대 부민캠퍼스에 전차 한 대가 유물처럼 전시된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 근대 자산의 활용면에서 나가사키와 부산은 벌써 한수 차이가 난다.

근대 자산 활용의 본보기, 데지마 복원사업

나가사키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했다는 데지마(出島)는 부산으로선 부럽게 바라봐야할 역사 명소였다. 데지마를 찾기로 한 것은, 원가 깨우침과 배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작용했다. 지도에 의지해 데지마 전차정류장 부근에 이르자 '국가지정사적 데지마 네덜란드 상관터'란 안내판이 나타났다. 안내판 옆의 고풍스런 정문을 들어서자 색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비포장 도로가 직선으로 쭉 뻗어 있고, 길 양쪽으로는 2층 목조건물이 늘어서 있다. 어디서 나왔는지, 일본 전통 무사복장을 한 사무라이가 방문객을 맞으며 원가를 건넨다. '되살아나는 데지마'라고 적힌 안내문이었다. 사진을 찍자고 하자 사람 좋은 표정으로 "하이!"를 연발한다. 데지마는 1636년 나가사키 앞바다에 부채 모양인 공섬으로 건설됐다. 면적은 1만 5,395㎡로 축구장 2개를 합한 규모다. 당시 에도 막부(1603~1867)는 유



나가사키 평화기념상



데지마 항구

럽 국가들 가운데 일본에 가장 먼저 진출한 포르투갈인의 기독교 포교를 막기 위해 데지마라는 ‘금단구역’을 만들어 이들을 몰아넣었다. 그 후에도 막부는 1639년 포르투갈인들을 추방하고 1641년 네덜란드 무역상들에게 데지마를 내줬다.

이런 역정 속에서 데지마는 1859년 일본이 쇄국정책을 포기하고 개항할 때까지 218년 동안 일본이 유럽과 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1653년 제주도에 표류해 13년 동안 조선에 붙잡혀 있다가 탈출한 하멜 역시 데지마를 오가던 네덜란드 선원이었다. 하지만 데지마는 일본의 개항으로 ‘유일한 교역창구’로서의 기능을 잃었고, 1904년 주변 바다의 매립으로 섬에서 육지로 바뀌었다. ‘교역창구 데지마’는 1951년 되살아났다. 데지마에서 상관(商館)을 운영했던 네덜란드에 의해서였다. 2차 세계대전 결과 일본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게 된 네덜란드는 배상금을 포기하는 대신 데지마를 복원해달라고 일본에 제안했다. 일본은 수락했다. 네덜란드로서는 해외의 역사적 자취를 되살리는 효과를 얻고, 일본으로서 지역재생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데지마 복원은 간단치 않았다. 1996년 4월 첫 삽을 뜨기까지 45년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했

다. 데지마 지역을 발굴 조사해 무역항의 흔적을 찾아 고증하고, 상업지역으로 변한 민간 소유의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이 특히 힘들었다고 한다. 1996년 지역상공계를 중심으로 ‘데지마 복원 모금활동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움직인 것도 힘이 됐다. 복원사업은 4단계로 추진됐고, 2016년 3단계가 끝나면 내부 복원은 마무리된다. 그동안 들어간 예산은 147억 엔(약 2400억원)에 이른다. 향후 2050년까지 진행될 4단계 사업은 외곽의 땅을 파내고 물길을 만들어 데지마를 다시 섬 형태로 되돌릴 계획이다. 이때는 노면전차도 놓인다고 한다. 데지마가 복원되자 국내외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다. 2015년까지 연간 40만 명이 찾아들었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초기 투자비를 제외하고 순수 운영 구조만 보면 이미 지난 2006년부터 흑자라고 한다. 수지 문제는 부차적인 것 같았다. 나가사키 시는 데지마를 통해 ‘개항과 교류’의 역사, 근대에 눈뜨는 과정을 세계에 알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역사유산의 자원화로 거듭나는 관광문화도시

데지마는 쇄국시대의 열린 무역항이란 점에서 부산 초량왜관과 역할이 매우 비슷하다. 17~19세기 에도

막부와 마찬가지로, 조선도 쇄국정책을 펴고 있었다. 국경이 접한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둔 일본과의 제한적인 교역이 있었으나, 서양과는 철저히 단절돼 있었다. 네덜란드 선원 하멜을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조선은 부산 중구 용두산 일대 10만여 평에 초량왜관을 허용해 일본과의 외교 교역 창구로 활용했다. 이곳에는 300~500명의 일본인이 상시 거주했다. 규모 면에선 데지마를 크게 압도한다. 하지만 데지마와 달리, 초량왜관은 복원은커녕 시민들의 인식조차 낮다. 부산시 등이 나서 역사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데도, ‘일본 콤플렉스’에 묶여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 간 생각의 차이는 ‘콘텐츠’의 차이로 귀결되고 있다. 메이지 유신에 성공해 근대화를 앞당긴 일본과 쇄국의 틀에 갇혀 근대를 보지 못한 조선의 차이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고 할까.

데지마를 돌아보던 중 현지 갤러리에서 ‘데지마와 한반도의 교류’라는 기획 특별전을 볼 기회가 있었다. 데지마가 한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특별전이였다. 17~19세기 한반도의 동향은 데지마를 거점으로 활동한 네덜란드 선원 하멜과 1823년 데지마

에 들어온 독일 의사 지볼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서구에 전해지고 있었다. 조선(동래)과 데지마는 대마도를 통해 삼각무역을 하였고, 데지마에 수입된 동남아의 생산품은 대마도를 거쳐 한반도에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옛 그림도 전시되고 있었다.

데지마는 이처럼 일찍이 눈을 뜨고 세계인들을 다시 부르고 있지만, 초량왜관은 일부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시민들만 논의할 뿐, 역사 관광 이슈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일 교류사 및 근대사, 부산의 관광자원을 위해서라도 초량왜관도 어떤 형태로든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데지마 복원이 말해주듯, 나가사키는 역사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었다. 2015년 2차 세계대전의 유산인 하시마 섬(일명 군함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크게 늘어났다. 나가사키항에서 약 18km 떨어져 있는 하시마 섬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800여명이 강제징용되어 죽거나 고통을 겪은 비극의 역사 현장이다. 1974년 폐광이 되면서 40년 넘게 무인도로 방치돼 있던 이 섬은 이제 일본의 20세기 산업화와 메이지 유신의 산물로 재조명되고 있다. 강제징용 사실

19세기 나가사키항



나가사키 하시마섬(군함도)





1. 지역프로듀스 콘서트
2. 나가사키 라운지 콘서트

은 숨겨진 채 말이다. 나가사키 문화기행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없는 이유다. 산업유산을 재조명해 관광산업의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나가사키 시는 최근 시민 대상 문화예술 행사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매월 개최되는 '라운지 콘서트'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다. 나가사키 브릭홀 3층 라운지에서 무료로 열리는 이 음악회는 프로 음악인들과 함께 '시민 뮤지션'이 참여해 기량을 자랑하는 자리기도 하다. 나가사키 시의 '지역&음악 매력 발신 사업'으로 열리는 '프로듀서 콘서트'도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시작된 이 콘서트는 전문 연주자가 지역을 찾아가 지역특성에 맞는 선곡을 하고 숨결이 들릴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연주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듀서 콘서트 실행 위원회'가 주최하며 1인당 500엔씩 입장료도 받는다. 부산-나가사키 간 문화교류 행사도 종종 열린다. 2015년 3월 부산 서면 지하상가 이벤트 공간에서는 '나가사키 데이'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나가사키현 내 지자체인 나가사키 시, 운젠 시, 쓰시마 시 관계자들이 나와 현지 관광지 소개와 사케, 카스텔라 등 특산품 시음·시식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은 일본 전통의상을 입고 팽과리와 북 등 악

기를 연주하는 '찐돈야(칭동야)' 축하공연도 펼쳤다. 부산에 한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오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교역의 역사와 문화가 농축된 나가사키 음식

나가사키 문화여행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음식이다. 일찍부터 교역을 통해 해외 문물을 받아들인 나가사키는 국제도시답게 음식에도 국제성이 버무려져 있다. 이는 나가사키 음식의 중요한 특징이다. 나가사키에는 외국인들이 꼭 먹어보기를 원하는 '나가사키 음식 베스트 5'가 있다. 여기에는 가장 먼저 '나가사키 카스텔라'가 꼽힌다. 16세기 포르투갈 선교사에 의해 전해진 포르투갈의 과자가 나가사키에서 폭신평신했던 카스텔라로 둔갑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나가사키에는 100년 넘는 카스텔라 전문집이 적지 않다. 일본과 서양을 융합한 '사세보 버거 & 레몬 스테이크'도 유명하고, 중국 음식과 서양 요리, 일본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싯포쿠 요리', 쫄깃쫄깃한 식감이 돋보이는 일본 소고기 히라도큐도 먹어봐야 할 나가사키 음식이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나가사키 짬뽕'이

다. 이 짬뽕은 중국의 탕육사면이 시초라고 하며, 진한 육수에 고기, 어패류, 채소 등을 듬뿍 넣고 끓인 면 요리로서 쫄깃한 면발이 특징이다. 개그맨 이경규가 개발해 화제가 된 '꼬꼬면'은 국물 색깔이나 맛에 있어 나가사키 짬뽕과 비슷하다. 이들 인기 요리는 하나같이 국제화의 산물이다. 외국의 맛에 일본 맛을 버무린 융복합의 산물이라고 할까. 그 대표적인 자취가 이른바 '슈가로드(Sugar Road)'다. 에도막부의 유일한 대외 창구였던 나가사키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과 서양의 과자나 설탕이 가미된 음식들이 퍼져나간 길이라는 의미다. 이 시기에 정비된 나가사키와 기타큐슈의 고쿠라(小倉)를 연결하는 228km는 지금도 '나가사키 가도(長崎街道)', 일명 '슈가로드'라 불리고 있다. 당시 지방호족이나 외국인인 수도인 에도에 가기 위해 이 길을 사용했고, 수입된 설탕도 이 길을 따라 일본 전국에 운반됐다. 나가사키 음식에는 이처럼 나가사키의 교역 역사와 문화가 농축되어 있다.



문화예술정보

말문을 열다

050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는 도시, 부산 이태광

054

완숙한 황혼이 아름답다. 연극인 전성환 이내

062

나는 예술가인가 예술 강사인가? 손재서

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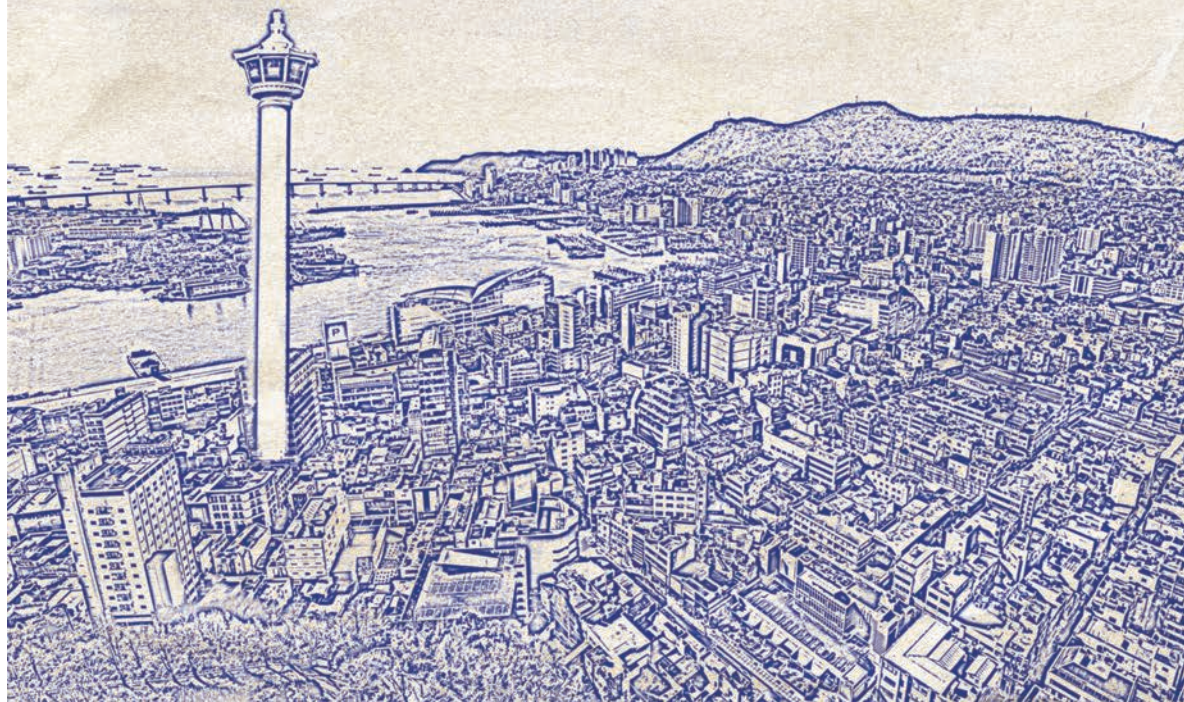
하연화, 춤 같은 삶을 사는 춤꾼 이청산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는 도시, 부산

글 | 이택광 문화비평가, 경희대학교 영미문화전공 교수

부산에 내려갔다 온 서울의 지인들은 곧잘 해운대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지만, 사실 나에게 부산은 남포동에서 영주동으로 이어지는 '원도심'이다. 나에게 부산은 '마도로스'라고 불리던 외항선 선장의 도시이기도 했다. 동네에 살던 외항선 선장은 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항상 각국의 동전들을 선물로 가져와서 나눠 주곤 했다. 그때 받은 남십자성을 닮은 별별 동전들은 지금도 나에게 부산의 이미지와 함께 깊이 각인되어 있다.



태종대 등대



자갈치시장

부산, 한국의 도시 중에서도 특별한 도시

지금은 부산을 떠나서 살게 되었지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의 절반 이상을 이 남쪽의 해안도시에서 보냈다. 아직도 부산이라고 하면 아련하게 떠오르는 풍경이 있는데, 외지인에게 낯선 송도의 해안가가 그것이고, 술술이 우거졌던 해운대와 태종대의 등대가 그것이다. 어린 시절 처음 부산을 찾았을 때 봤던 풍경이 뇌리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살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 떠나서 보니 부산은 한국의 도시 중에서도 특별한 도시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된다.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우연히 어떤 소설가를 만나서 '부산 체류기'를 듣고 나서야 평소 느끼던 부산에 대한 정취가 무엇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소설가는 부산에 몇 달간 체류하면서 받았던 '이국적인 인상'을 이야기했고 그 이국성의 정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홍콩이나 마카오 또는 싱가포르와 닮아 있으면서 다른 무엇을 부산에서 느꼈다는 것이 그 소설가의 전언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다른 점은 확실히 부정할 수 없는 부산만의 특성이기도 하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갈치 시장이나 동광동에 가면 이국적인 일본식 가옥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외가가 있었던 중앙동 역시 '양옥집'이라고 불리는 일본식 주택들로 이루어진 동

네였다. 이른바 도시 재개발로 하나씩 사라져갔지만, 여전히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은 예전의 흔적들을 남겨 놓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내려갔다 온 서울의 지인들은 곧잘 해운대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지만, 사실 나에게 부산은 남포동에서 영주동으로 이어지는 '원도심'이다. 영주동에서 수정동 산복도로로 이어지는 등성이를 '영선고개'라고 했다는데, 일제 강점기 부산항에 들어오는 배들을 맞이하러 간다고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다는 말을 어린 시절에 들었다. 나에게 부산은 '마도로스'라고 불리던 외항선 선장의 도시이기도 했다. 동네에 살던 외항선 선장은 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항상 각국의 동전들을 선물로 가져와서 나눠 주곤 했다. 그때 받은 남십자성을 닮은 별별 동전들은 지금도 나에게 부산의 이미지와 함께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이국적인 정취 속에 숨 쉬는 부산만의 색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부평강통시장에 가서 일제 녹음기를 구입하고 보수동 헌책방골목에 가서 미군들이 팔고 간 내셔널지오그래픽 같은 잡지를 사서 읽던 시절도 있었다. 관광객자에 등장하는 이 모든 것이 한때는



영주동 (1960년) | 부경근대사료연구소



보수동 책방골목 과거(1923년) | 임시수도기념관

부산에서 누릴 수 있는 호사에 속했다. 서울에서 볼 수 없었던 동경의 패션이 남포동 거리를 활보하던 때였다. 부산항에 가끔 거대한 크루즈선이 들어오기도 했다. 외할아버지는 미군부대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덕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셨다. 외할아버지에게 용두산공원은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단골 쉼터였다. 용두산공원에서 관광가이드 노릇을 자처하셨던 것이다. 물론 부산은 영어 못지않게 일본어와 중국어가 통용되던 도시였다. 초량은 중국인의 거리로 일찌감치 유명했다. 특히 대만에서 건너온 화상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이국적인 정취를 한껏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대만 화교들이 세운 학교들은 한국의 학교와 닮았으면서도 달랐다. 개인적으로 나는 대만소학교 옆에 있는 중국식 가톨릭 교회가 좋았다. 후일 대만과 오사카를 여행한 뒤에 이국적인 부산의 정취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었다. 용호동 언덕에 있던 작은 공방들이라든가, 신선대에 있던 가톨릭 묘지와 형평사 운동으로 불렸던 한국 최초의 아나키스트 운동가들의 무덤이라든가, 송도의 해안가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들과 영선동 길을 따라 걸으면서 볼 수 있었던 항구의 풍경들이 대만과 일본의 도시들을 연상시킨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부산이 이들 도시를 고스란히 복제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 독창성을 가미해놓고 있다. 자갈치시장과 남포

동 거리는 분명 다른 아시아 도시들을 연상시키지만, 그렇다고 똑 같은 느낌을 주진 않는다. 이 부산의 독창성이야말로 이국적인 정취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음식만 봐도 그렇다. 많은 이들은 이제 부산이라고 하면 돼지국밥과 밀면을 떠올린다. 어묵도 부산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딱히 부산만 어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나는 서울에 살면서 부산의 돼지국밥이 왜 '전국화' 하지 않는지 매우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중이다. 부산의 돼지국밥을 흉내 내서 돼지국밥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국밥은 있지만 부산 어디에서든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돼지국밥을 부산 바깥에서 먹기는 어렵다. 돼지국밥이나 밀면은 한국전쟁 이후에 대중화된 독특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부산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돼지국밥과 밀면은 이런 한국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부산적인 것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만든다. 돼지국밥과 밀면은 부산 고유의 것이지만, 부산 자체는 여전히 국제적인 도시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가진다. 이국적인 부산의 정취는 많은 부분 이런 국제적인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산은 일찍부터 국제적인 도시였다. 경양식이라고 불리

던 돈까스와 함박스테이크가 일본과 대만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신기하게 여겼던 때도 있었다. 부산은 일제 강점기에 크루즈 관광이 시작되던 중심지이기도 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부산은 외래적인 것에 대한 무한한 개방성을 보여 왔다. 한국에서 대중문화와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부산 출신이라는 것도 단순한 우연은 아니다. 서울에서 접하기 어려운 외래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낸 나 같은 이들에게 큰 장점이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어디에도 있는 부산

부산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관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때 '조선방직'으로 대표되던 섬유생산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생산보다는 무역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일본제 가전제품이나 미국제 가공식품을 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특별한 장치 없이도 일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컬러텔레비전이 보급된 뒤에 위성 안테나를 설치한 친구네 집에서 일본 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충격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 광고에 등장했던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었다던 컵라면이 나중에 한국에서 출시되었을 때 격세지감이 들기도 했다. 부산에 흔했던 '가비방'이라고 불리던 커피숍이 1960년대 한창 일본에서 붐을 일으켰던 '커피집' 문화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일본의 커피 문화는 전후 시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부산은 이런 일본의 최신 문화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던 통로였던 것이다. 고등학교 때 자주 들렀던 제과점 이름이 왜 동경제과인지도 후쿠오카의 제과 산업을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다. 부산의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기술을 배우고 귀국해 연 제과점들을 아직도 기억한다. 후쿠오카에 갔을 때, 어린 시절의 제과점들이 생각나서 잠시 추억에 잠긴 적도 있다. 이처럼 부산은 굳이 따지자면 미국보다 일본문화에 더 가까운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일본문화가 직접적으로 수입되어서 유통되고 시간을 거쳐 혼종성을 만들어내는 도시가 바로 부산인 것이다.

이렇게 부산에 당도한 외래문화를 모두가 좋게만 본 것은 아니다. 이른바 '왜색'이라는 꼬리표가 부산이라는 이름에 따라다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했지만, 부산의 이국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왜색'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어만이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도 부산에서 쓰이는 국제어들이다. 이제는 더 많은 언어들이 부산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산만의 고유한 문화 역시도 사라지지 않았다.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올수록 더 많은 것들이 서로 섞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부산은 이런 변화의 용광로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시이다.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서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바로 부산이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또한 그렇기에 어디에도 있는 장소가 부산이라는 곳이다.



완숙한 황혼이 아름답다.
예쁘고 바른
우리말을 지키는
연극인 전성환

글 | 이내
기타 한 대와 목소리로 노래하는 '동네 가수'

일시 2016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장소 을숙도문화회관

대담 전성환 연극인

이내 싱어송라이터

사진 이계영 포토그래퍼

이내 (김인혜)

“60대, 바로 그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인생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이윤택 연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변사는 이런 말로 극을 연다. “결국, 남는 건 기억뿐입니다.” 오래도록 노래하는 멋진 ‘할머니 포크 가수’를 꿈꾸는 김인혜 씨의 인생과 예술에 대한 물음에 멋있는 “할아버지 연극인” 전성환님은 기억의 공간속 차곡차곡 쌓아 둔 아름답고 소중한 여러 색깔의 추억을 실타래처럼 풀어냈다.

서른 살 무렵 처음으로 기타를 연습하기 시작했을 때 왼손 손가락 끝이 별경게 붓고 아렸다. 금세 포기하게 될 것만 같았다. 그때 ‘할머니 포크 가수’라는 말이 문득 떠올랐다. 빨리 능숙하게 되지 못해도 계속하다 보면 할머니가 되어 있을 때는, 그 정도의 세월이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멋진 할머니가 되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면 연습할 맛이 났다. 7년이 흐른 지금 나는 포크 가수가 되었고 여전히 멋있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노래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전성환 선생님은 사진만 봐도 멋있는 할아버지 연극인이다. 만나 뵙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연극에 쏟은 사람의 얼굴빛이, 내가 이제껏 만난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은 배역을 무대에 올렸을지도 모를 그 목소리가 궁금했다. 부산시립극단의 정기공연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연습 중이던 선생님은 서초에 불루진, 바바리코트를 걸치고 극 중 배역 ‘헤르만 강’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다. ‘김인혜’라는 내 본명을 소개하자마자 선생님은 발음을 고쳐주신다. 평소 발음이 분명해 노래 가사가 잘 들린다는 평을 들던 나였지만 부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 ‘네’ 발음은 항상 난관이였다. 발음이 어려워 친구들은 날 ‘이내’라고 불렀고 나는 그 이

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입술을 이리저리 움직여보았다. 그가 정확한 발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전성환 “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귀를 잘 뚫어줘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말도 예뻐지지. 우리 연극을 하는 사람들의 책무라는 게, 처음에 젊어서는 연극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고 목표를 세우기도 하지만, 사실 처음엔 허영이 반이예요. 그렇게 시작된 연극이 점차 책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민중계도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말을 바르게 쓰도록 일깨워 주는 것 말이에요. 어떤 프랑스 영화 장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아이가 숙제를 안 해오니까 선생이 “너 저녁에 아버지랑 같이 어디서 하는 연극 보고 무대감독 사인 받아와.” 해요. 오래 돼서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영화를 보고 “아이고, 이런 세상에. 저한테! 저게 연극인의 책무인데!” 했지요. 60년대 시립극단 예술감독을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후배들에게 바른 언어와 바른 표현을 가르치는 것을 내 업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극을 통해서 한 작품 속에서 잘못된 표현을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를 많이 낭송하게 하죠. 연극 대사는 시어니까.”

우리말을 지키는 것이 연극인의 역할이라고 믿고 실천해 오신 선생님의 입에서는 그림 같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오래전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까. 그는 마치 파수꾼처럼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선생님에게서 느껴지는 그 단단함 뒤에는 여러 색깔의 기억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공교롭게도 선생님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배역이라는, 이윤택 연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변사는 이런 말로 극을 연다. “결국, 남는 건 기억뿐입니다.”

전성환 “해방되기 전이었던 1940년에 나는 북간도 노묘에서 태어났어요. 네 살 때 큰아버지 집에 모여서 이만한 큰 술을 걸어놓고 불을 때고, 나무로 길게 삼각형 틀을 만들어 국수를 뽑던 기억이 나요. 뒤에는 사람들이 여럿이 타고 있어요. 누가 “성환아, 일로 온나.” 해서 나를 안고 같이 영차영차 당기면 국수가 나오는 거라. 힘을 주어 누르면 국수가 쪽 빠지고 힘을 빼면 반죽이 서로 뭉쳐서 올라가면서 굵었다, 가늘었다, 굵었다, 가늘었다, 이래서

전성환



막국수야. 그게 일정한 거보다 훨씬 맛있다고. 씹는 식감도 그렇고.”

전성환 “해방을 맞이하고 소가 끄는 술기(수레의 함경도 방언)를 타고 거기서 나왔어요. 토문(도문)이라는 데를 거쳐서 두만강 건너고 원산으로 내려왔지. 어린 성장기는 거기서 보내요. 처음 전쟁이 났을 때 원산은 대도시니까 거기서 한 3~40리 떨어진 봉릉이라는 시골로 피난을 갔어요. 그 어린 시절의 추억,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충천연색으로 펼쳐지는 시절, 그야말로 진달래 먹고 다람쥐 쫓던 아름다운 어린 시절이 그때야. 비록 전쟁 때였지만. 1.4후퇴 때 부산으로 와서 피난민들이 처음에는 부산극장에서 잤어요. 요즘 같은 극장이 아니고 정종 먹으면서 가부키 같은 연극 보던 큰 극장이었지. 거기서 일주일 살다가, 광복동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었던 시민관이라는 극장에 있다가, 또 초량에 중앙극장으로 옮기고. 피난민 수용할 만한 넓은 데가 극장이었던 거지.”

내가 시집에서나 보던 지명, 역사책에서 보던 사건들이 선생님에게는 자신의 눈 앞에 펼쳐진 삶의 자락들이었다. 그의 세밀한 기억 사이사이에는 늘 극장이 있고 연극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어쩌면 그때가 지금보다 질 높은 문화와 예술을 향유한 시대라고 느껴졌다. 현대의 우리처럼 TV나 인터넷을 통해 구경하는 것이 아닌 직접 눈으로 몸으로 손으로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는 펄떡펄떡 살아있었으니까.

전성환 “원산 있을 때, 아버지를 따라 극장에 가서 ‘콩쥐 팥쥐’ 오페레타를 봤어요. 팥쥐



는 발이 커서 콩쥐 신발이 안 들어가잖아요. 관리들이 나와서 신발 신기는데 그 옆에서는 ‘엄지발가락 구부려라, 검지발가락 구부려라’ 이렇게 합창을 해요. 또 새벽에 소 먹이러 가는 장면에는 ‘이른 새벽 마을길을 소 먹이러 가네. 밤이슬에 젖은 길은 이른 새벽 마을 길. 병아리를 났을까 조심조심’ 6학년 음악 시간에 내가 ‘홀리가는 냇물 속에 음악 소리, 백옥같이 맑은 냇물’ 이런 노래를 하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

“원산에서요.”

“원산에서 그거 가르쳐주데? 그리고 또 뭐 배웠니.”

“기차 노래요.”

“그건 어떻게 하니?”

‘산이 돈다, 강이 돈다, 마을이 돈다. 칙칙폭폭 긴 구름 능금 밭 구름 같구나. 먼 장송 량량 별 단숨에 지나 대동강 건너간다. 잘도 달린다. 스물 몇 개 짐차 달고 잘도 달린다.’

피난민 학교 다닐 때 담임이셨던 이교열 선생님은 나한테 큰 영향을 주셨어요. 영화나 연극을 자주 보여줬지요. ‘로린 마젤’이라는 지휘자가 나오는 <영광의 서곡>, 붉은 색이 많이 도는 그런 영화였어요. 부산극장에서 본 국립극단 <맥베스>도 생각나고요. 극 중에 마녀들이 팔죽을 끓이는데 막 김이 펄펄 나는 걸 보고 신기하다고 박수를 쳤지. 그분은 자기 아는 힘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참 고마우신 선생님이에요.”





이내 싱어송라이터

그의 기억 속 얼굴을 따라가다 보니 내 기억 속의 아름다운 얼굴들이 떠오른다. 누군가의 마음에 빚지어 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까. 멋진 할아버지가 따듯한 난롯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던 이 시간을 나는 또 어떤 색깔로 기억하게 될까. 사람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마지막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 놀라웠다. ‘할머니 포크 가수’가 되겠다는 내 결심을 향한 든든한 응원으로 여기며 두고두고 꺼내볼 것이다.

전성환 “젊어서는 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튀어요. 연극에서 배역을 맡으면 예쁘게 흘러가서 땀을 못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굴지요. 그런데도 그 많은 작품을 해내는 힘은 자기가 하고 싶었기 때문이지 누가 시켜서 한다면 못하죠. 그러다 보면 문학적인 것이나 연기표현에 있어서 넘치게 되거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방법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40대, 50대에는 무시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안목이 생겨요. 그 전에는 미안하지만 안 생깁니다. 이때 합일을 이루기 시작해요. 냉정하게 비판해서 어떻게 해야 넘치지 않고 침착하게 아름다운 것을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보여요. 하지만 50대 말쯤이 되면 자기가 만든 그 방법에 또 구속되어 있는 걸 발견해요. 이것이 깨지는 게 60대 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황혼은 아름다운 거구나, 인생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전성환 작품

전성환

연극인

1963년 극단 전위무대 창단, MBC 부산문화방송 재직(프로듀서)
1976년 2월 ~ 1983년 1월 한국연극협회 부산지부장 역임
1983년 향토문화상 수상(놀이문화재단)
1989년 한국연극예술상 수상
2001년 ~ 2004년 부산시립극단 수석 연출 역임

제22회 아세아영화제 한국대표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위원 위원장

이내(김인혜)

싱어송라이터

2011년 7월 ~ 2015년 5월 부산 <생각다방 산책극장> 운영
2014년 이내 1집 <지금 여기의 바람>
2015년 이내 2집 <두근두근 길 위의 노래>
2014년 4월 ~ 현재 기획공연 진행(문화/대안공간 등)
<여성주의저널 일다> 칼럼 연재

나는 예술가인가 예술 강사인가?

글 · 사진 | 손재서 연극 예술강사, 극단 자갈치 배우



십 여 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연극 강사를 맡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출강하기 시작한 것이. 그 해 제게 배정된 시수는 연간 총 34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해에 출강하는 시간보다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연수시간이 더 많다고 강사들끼리 모여 푸념을 늘어놓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네요. 2016년 올해에는 한 강사가 배정받을 수 있는 한계치인 340시간을 다 채워 수업 할 수 있었으니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단순계산으로도 십여 년 만에 예술 강사 수입이 딱 열배가 늘어나고, 그만큼 자연스럽게 예술 강사에 대한 저의 부담감과 열정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연극배우인가 연극 강사인가?

요즘 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은 과연 나는 예술 강사인가, 예술가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근래에는 부부의 역할분담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바뀌어 상대적으로 수입 많은 사람이 가장, 적은 사람이 주부라는 우스갯소리도 합니다만, 수입으로만 따진다면야 요즘의 저는 예술가보다는 예술 강사인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두 가지 일 모두 살아가는 일의 일환이고 다 같은 예술적 작업이지만, 아직도 두 가지 일이 마음속에서 합일하지 못한 것 또한 저의 모자람의 일면이겠지요. 연극 강사를 시작하기 전 제가 벌어들였던 수입은 출퇴근을 위한 지하철 정액권과 잠수 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폰 요금대납 정도였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 와중에도 술을 사 먹고 그 아까운 걸 게워내기도 했다는 사실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모두 고개를 끄덕이실 동서고금 연극계의 미스터리이지요. 그러던 시절 연극 강사로 첫 해에 제가 벌어들였던 강사비는 굉장히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그 고마움의 정도가 곧 제가 아이들을 만나는 온도가 되어 첫 해에 참 많은 시도를 하였습니다. 연극반 아이들에게 좋은 공연도 보여주고 싶어 공연장에도 데리고 가고, 우리 것이 좋은 것

이라 얼썬 풍물, 탈춤도 가르치고 싶고, 청소년연극제에 나가서 상도 타고 싶고, 연극배우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희망도 심어주고 싶고……. 그러기를 몇 년……. Knock Out! 근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학사일정상의 이유로 1, 3, 5교시로 수업을 배정하여 책상도 없이 공간 시간을 운동장에서 배회하기도 하고, 연락도 못 받고 아이들이 소풍 간 텅 빈 학교에서 돌아서기도 하고, 담당교사의 부당한 지시를 그저 고개 숙여 감내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이러려고 내가 연극 강사가 되었나 자괴감도 들고…….' 사람이 참 나약한 것이어서 그럴 때에는 노력 대비 강사비가 형편없어 보이고, 현역 연극배우가 여기까지 와서 강의를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런 취급을 하나며 슬며시 오만이 고개를 들기도 하는 것이었지요.

나는 예술가인가 연극 강사인가?

예술가로 살기 위해 수입이 필요하고 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예술 강사로 일한다.” 한 때 이것이 아주 솔직한 정답이라 생각하며 살았고, 지금도 어쩌면 이 생각에서 벗어나 살고 있다고 장담하기 힘듭니다. 예술 강사라는 것이 예술가로 살기 위해 교육책으로 하는 밥벌이인가 하는 생각은 늘 나를 자괴감으로 몰고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도, 아이들을 맡긴 학교도, 월급을 주는 아르떼도 재단도, 다른 누구보다 수업을 하는 제가 그걸 용납하기 힘드니까요.

이때쯤 교급을 중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꾸어서 출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이와 엇비슷하게 크는 아이들을 맡아서 강의를 했지요. 집에 있는 놈도 말 안 듣지만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도 말 참 안 듣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말을 서른일곱 번쯤 하고, 이 아이 혼낼 때 저 아이 떠들기를 열아홉 번쯤 하면 40분 수업은 뭘 했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고는 했습니다. 연극 수업이 앉혀놓고 하는 수업이 아니다보니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교실의 엔트로피는 점점 높아가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몇 년의 중등학교 연극 강사 경험도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에서는 별 도움이 못 되었습니다. 생짜 초보강사였다는 것이지요. 초보는 초등이 제일 먼저 알아보더군요. 잠깐의 지루함도 참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잠깐의 틈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프로그램을 5분 단위로 끊어서 지루할 틈이 없도록. 결과는 이번에도 Knock Out! 아이들은 지루함도 참지 못하지만 뽀뽀한 건 온 몸으로 거부 의 몸짓을 표현했습니다. 몇 해 전 집에 있는 큰 아이가 일곱 살이 되어 젖니를 뽑았습니다.

“이 빠진 자리에 이야기 하나가 솟아났습니다. 오늘은 감동이었다가 한참은 남들과 같이 나누는 술자리 안주였다가 나중에는 소금이 될 이야기. 엄마가 실을 걸고 아빠가 이마를 탁 치니까 어찌고저찌고 되었던라는……. ㅎㅎ 자꾸 웃음이 납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휘갈겨 써놓았네요.

이때쯤 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새끼 중한만큼 남의 집 자식들도 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이. 아이들에게 극단의 처방이랍시고 화를 내고 교실 문을 닫고 5분 일찍 나간 다음 수업시간에 아이들은 저에게 편지를 한 장씩 써서 교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인생은 어쩔 이리도 3류 드라마 스토리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인지. 그럼에도 당사자가 3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느끼는 감동은 또 어찌 그리 눈물바다인지. 모두가 소금 같은 아이들의 힘, 모두가 소금이 될 이야기의 힘. 어쩌면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수업 프로그램이 낡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젖니 뽑힌 자리에 영구치가 돋아나듯이 아이들은 바뀌고 있는데 내가 못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때부터 이곳저곳 연수를 다니고, 연극교육에 관한 책을 찾아 도서관에도 가고, 비슷한 일을 하는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제가 느낀 한계만큼 철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비춰볼 때에는 물가에 가지 말고 사람들 속으로 가라고 했던가요. 아이들은 조금씩 저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의 반응에 비춰 자신을 가늠하듯이 연극 강사로서는 아이들에게 비춰 저를 가늠해보게 되었지요.

예술가는 직업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다

예술 강사 연수에서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작품을 만드는 작업으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자신의 예술작업으로 삼고 매진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을 안 순간은 예술가와 예술 강사 사이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제게는 큰 깨달음을 안겨 주었습니다.

요즈음 저의 또 다른 고민은 강사가 아이들의 성장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고, 얼마나 높은 곳까지 보여주어야 하는가입니다. 강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아이들의 세계에 손을 내밀어 (예술적으로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아주 높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어렵웃이나마 보여주는 것이 교육인가? 아니면 아이들과 같은 높이에서 함께 길을 찾는 과정이 교육인가? 좋은 스피커는 오케스트라의 음향을 뭉뚱그린 소리가 아닌 분명한 해상도로 악기 하나하나의 소리를 선명히 들려주면서도 조화를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언청이가 밤중에 아이를 낳고는 급히 불빛에 비춰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를 닮지 않았을까 경계한 것이지요. 아이들이 모자란 나를 닮지 않게 하는 것, 아이들이 각자의 색깔을 올곧이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학교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로 예술 강사 임금이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시급 3천원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내년 예술 강사 수업이 4월부터 출강이 가능하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예고 꽃 피는 봄이 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 아이 건담 로봇도 5월 이후로 미루어지게 생겼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관장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술 강사들에게만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고용의 안정을 이루어 주시길. 학교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을 예술의 기술적 전수자가 아니라 예술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교육파트너로 대해주시길. 마지막으로 나는 예술가인가 예술 강사인가?

예술가는 직업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것을 예술 강사를 하면서 조금씩 선명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특히 저를 아프게 깨우쳐 주는 아이들 덕분에 눈 뜨게 된 진리입니다. 나름 표현력과 상상력을 불러내기 위해 아이들과 수업할 때면 꼭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수업 참 재밌어요. 근데 우리 연극은 언제해요?”



하연화, 춤 같은 삶을 사는 춤꾼

글 | 이창산 부산민예총 이사장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있다. 내게는 춤이 도끼였다. 그리고 춤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나는 춤을 보고 있을 뿐 춤을 모른다. 그런데 춤꾼의 이야기를 쓰다는 것은 춤판에서 생을 보내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춤판을 열어가고 있는 춤꾼에게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막연하게 내가 춤을 접한 이야기와 춤에 대한 짧은 단상을 하연화라는 춤꾼의 춤에 기대여 조금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문화민주주의는 중앙 정부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던 문화예술 정책을 시민이 스스로 지역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일상의 삶에서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상향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즉 문화예술이 순수예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술가만의 예술이 아니라 개개인의 창조적 활동으로 문화적 역량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부산의 문화예술창작공간들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예술 참여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시민과 예술가의 성장에 문화예술창작공간은 어떤 시설보다 시민 가까이 있으며, 시민 속에 함께 예술함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연화 무용가

경남 무형문화제 제21회 진주 교방굿거리 춤 전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부산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전수자
춤배김새 대표

[수상경력]

제13회 전국 전통예술경연대회 은상 수상
제5회 부산무용콩쿨 동상
대표작: 〈날고 싶음에...〉, 〈가을 뜨락에 서서〉,
〈여름맞이〉, 〈빛이 될 때까지 1,2〉 등



춤, 몸의 언어이자 시대의 언어

춤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를 때 책을 통하여 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1976년 라즈니쉬가 홍신자에게 준 메시지는 충격이었다. 그대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기억하라. 이 〈사랑의 회오리바람〉을 삶의 에너지가 그대를 사로잡는 대로 따라서 가거라. 노래 부르고자 하는가? 그러나 그대 자신이 노래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 삶의 펄펄 끓는 에너지가 그대를 통해서 노래로 흘러나오게 하라. 춤추고자 하는가? 그러나 그대 자신이 춤추어서는 결코 안 된다. 삶의 이 야생의 에너지가 그대를 통해서 춤으로 흘러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대 자신을 지금 이 순간부터 남김없이 지워 버려라. 칠판의 글씨를 지워버리듯, 그렇게 흔적도 없이 지워 버려야 한다. 그대 자신을 버리고, 삶의 에너지가 이끄는 대로 따라 가거라. 이 흐름에 그대 모두를 내맡겨라. 이 흐름과 하나가 되어라. 때로는 그 뜻과는 반대되는 곳으로도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그대 생각을 따르지 말고 이 삶의 에너지를 따라가야 한다. 이 메시지를 읽고는 춤은 모르고 개념적인 춤만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춤추는 현장에서 춤으로 혁명을 본 것은 1987년 이한열의 노제 때 광장에서 맨발로 춤을 추는 이애주의 바람맞이 춤은 아! 춤이란 게 저럴 수도 있구나.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은 사

건에 또 한 번 춤에 충격을 받았다. 그때를 이애주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6.29 평화대행진을 위해 각 단과대학 별로 모이는 힘찬 발걸음 펄럭이는 깃발은 마치 진군의 나팔 소리 같았고, 그 힘찬 걸음은 나를 맨발로 뽕뽕 창공으로 솟구치며 온 몸이 뽕뽕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자연의 치유의 몸짓이었다. 나는 그저 추었다. 열심히 추었다. 춤이 끝나자 학생들은 치솟는 함성과 함께 거리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행진. 사람들은 거리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 시대 사람들의 열망이 내 몸을 통해 ‘바람맞이 춤’으로 표현됐고 그런 의미에서 춤은 몸의 언어이자 시대의 언어이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내 몸이 따라간 거지요.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치유하는 춤. 그래서 자연도 치유하고 해방으로 가는 춤을 출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희랍인 조르바라는 소설 속의 조르바의 춤이다. 물론 조르바의 춤은 실재하는 춤은 아니나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춤에 대한 생각이 또 다시 나에게 춤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었다. 조르바는 춤 속에 온몸을 내맡긴다. 손뼉을 치며 뛰고 발가락 끝으로 돌다가 무릎을 꿇었다가 다리를 움츠리고 또 치솟는 것이 고무로 만든 인



간 같다. 흡사 자연의 법칙을 정복하고 날아가 버리고 싶은 듯이 춤을 추었다. 조르바의 몸은 공중에 오랫동안 머물 수 없어서 땅에 떨어질 때마다 격렬히 떨리고 거둑거둑 사정없이 흔들거렸다. 조르바는 생기기를 그렇게 생겼다. 그 속에 소리를 지르는 악마 한 마리가 들어있고 그는 그 놈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에게 격한 감정이 일어 가슴이 터질 지경이 되면 그놈은 “춤춰라.” 고 명령하고 그는 춤을 춘다. 조르바의 세 살짜리 첫아들 디미트리키가 죽었을 때도 격렬한 춤을 추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이 친구가 먼저 몇 마디 했죠. 그러나 알아들을 도리가 없어야지요, 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만둬!” 그러면 이 친구는 벌떡 일어나 춤을 춥니다. 꼭 미친놈처럼 추더군요. 그 손과 발과 가슴과 눈을 보고 있으면 전부 알아들을 수 있었지요. 러시아 친구가 끝내자 내 차례가 됐지요. 나는 서너 마디 밖에 할 수 없었죠. 그 친구가 “그만둬!” 라고 소리치더군요. 나도 그 순간을 기다렸죠. 나는 벌떡 일어나 춤을 추었지요. 내 발, 내 손이 말을 했고, 내 머리카락, 내 웃도 말했지요. 허리에 차고 있는 나이프까지 말을 했어요. 춤을 끝내자 이 집에만 한 친구가 널름 나를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또 한 번 보드카를 철철 넘치게 따랐지요. 그리고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웃어요? 두목, 내말을 믿겠지요? 당신은 속으로 이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068 공감그리고

‘이 신드바드 같은 녀석이 무슨 잠꼬대를 하나. 춤으로 이야기를 하다니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일인가?’ 하고 내 맹세코 말하거니와 신과 악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칼을 뽑아 후려치듯 추어내는 춤꾼 하연화

이 세 가지의 춤을 머릿속에 두고 춤을 접한 것은 나와 가장 밀접한 공간인 산이었다. 산행을 하다보면 산을 잘 오르는 사람의 걸음은 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땅을 발바닥으로 움켜쥐었다 살포시 놓아주는 반복의 연속으로 걸음을 걷는 모습은 부는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하는 나뭇잎들의 소리에 맞춰 추는 춤 같다는 느낌을 하고, 또 하나 바람의 길이라는 바위의 길 따라 바위를 타고 오르는 모습은 춤꾼의 모습과 흡사하다. 허공에 손을 뻗는 간절한 손짓은 힘을 주고 버티다 공중으로 차고 오르는 발 디딤은 바람의 길에서 어느 홀드에 생명이 있는 지 어느 홀드에 죽음이 있는지 몰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뻗어 생명이 쥐여지기를 하나의 동점과 세 개의 지지점을 반복해서 변화시키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걸음은 춤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있다.

이렇게 멀리서 한편으로는 책으로 한편으로는 먼발치에서 춤을 접하다 가까이서 춤을 보게 된 것은 배김새의 춤이었고, 그 속에서 하연화라는 춤꾼을 보게 되었다. 배김새란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을 칼을 뽑아서

후려치듯 몰아내는 것을 상징한다. 배김새는 고성오광대와 동래야류에서 땅을 내리누르듯이 추는 춤사위를 말한다. 그리고 영남지방의 탈춤은 사물을 중심으로 한 농악 연주로 춤을 추기 때문에 한층 흥이 나고 구수한 멋이 있다. 이런 배김새의 이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춤꾼을 만났다. 그가 하연화이다. 금정산이 파괴되고 그혈을 뚫고 고속철도가 지나가게 될 때 그것을 막기 위해 춤을 택하고, 시를 택하고, 노래를 택할 때 산위에서 오방신장무를 출 때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배김새의 춤사위를 보았고 우리나라 춤사위에는 춤을 추어 나가다가 한 번씩 맺어 주고 풀며 다음 동작과 변화를 예고하는 춤사위가 많은데 배김새가 바로 이런 춤사위이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배김새의 춤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김허튼춤이다.

생명치유와 해방의 희열을 품은 춤꾼

하연화의 춤은 배김허튼춤에서 춤을 추다가 한 번씩 맺어주고 강한 동작으로 도약하여 땅을 내리 누르듯이 착지하는 동작으로 배김사위를 잘 표현한다. 그리고는 어깨춤을 추면서 춤의 중심을 잡아준다. 배김허튼 춤은 짜여진 동작이 있는 것과 즉흥으로 허튼춤을 추는 것이 어우러져 구성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예능인들

의 춤이라기보다 민중적인 춤을 무대에 올려 예능인들이 추는 춤이다. 그렇기에 한층 흥이 나고 서민적인 멋이 있다. 이런 춤의 중심에 하연화라는 춤꾼을 만날 수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만 있는 춤꾼이 아니라 그의 춤을 원하는 어느 곳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어느 날은 배김새 정기 공연에서 화려한 한복을 입고는 교태어린 진주교방춤을 추고, 어느 날은 다른 단체의 정기 공연에 객원으로 출연하여 가야금 산조에 맞춰 격조 있는 춤사위로 무대에 서고, 어느 날은 맨바닥에서 낙동강을 막고 있는 하구둑을 열어 생명의 바다로 강물을 흘러가게 하라고 온몸으로 부르짖고, 어느 날은 산위에서 지금은 없어진 것들을 위해서, 사람에 의해 없어진 들꽃들, 사람의 탐욕에 의해 무너진 산봉우리들, 사람들에게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헤매는 산짐승들 그리고 사람의 소리에 잃어버린 자연의 소리 그 많은 생명의 금어를 찾기 위해 질퍽거리는 흙 위에 온몸을 던져 절규했고, 어린 꽃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수장되고 어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 눈 멀쩡히 뜬 채로 수장되는 모습을 볼 때는 아스팔트 위에서 분노할 줄 알았고, 몇 사람의 농단에 의해 나라가 나라꼴을 잃고 좌초된 채 어린 소녀들이 외치는 ‘이게 나라냐’는 외침에는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그 속에 철저히 있는 모든 것을 어르다가 푸는 춤 같은 삶을 사는 춤꾼이다.

그와 함께 세월을 같이 보낸다는 것은 함께 춤을 추는 것과 같다는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먼 무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웃고 함께 분노하며 함께 외치는 곳에 그가 같이 있는 까닭이다. 나는 언젠가 그의 삶의 신산고초가 삭히고 삭혀 그 시김새가 그를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춤으로 흘러나올 것이란 것을 안다. 그리고 그가 바람 부는 대로 몸을 맡겨 따라가는 그 품에 많은 생명이 치유되고 해방의 희열을 느낄 것을 안다. 그리고 춤으로 어떤 생명을 가진 것들과 아니덜 진화된 바위와 산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춤을 출 것을 기대한다.



부산의 노래

문화 돋보기 Ⅱ

072

부산사람, 부산의 노래, 부산의 미래 김형찬

076

부산의 노래 김창욱 박철홍 장현정 정두환



부산사람, 부산의 노래, 부산의 미래

글 · 사진 | 김형찬 대중음악저술가



부산사람의 기질이 가장 잘 발휘되는 대표적인 장소가 사직야구장이 아닐까?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그저 갖고 있는 쓰레기봉지와 신문지로 응원도구를 만들어내는 임기응변적 창의성은 야구를 놀이문화로 격상시켰다. 부산사람이 얼마나 흥이 많은지는 사직야구장에서 최초로 시작된 응원가 〈부산갈매기〉를 시작으로 팀 응원가, 선수 응원가가 모두 부산에서 시작된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해운대 엘레지 노래비



아리랑 69.3(배호, 정훈희), 미도파레코드사 자리



굵고 짧은 것을 좋아하는 흥 많은 부산사람

부산사람의 굵고 짧고 화끈한 성격은 상대 투수가 주자에게 견제구를 던질 때 1루 쪽에서 굵고 짧게 나오는 “마”라는 함성에 응축되어 있다. 야구규칙에 전혀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홈구장의 이점을 가장 잘 활용한 이 한마디에 상대투수들은 그만 오금이 저린다고 한다. 이런 부산사람의 기질에서 나온 야구장 응원문화는 전 세계에 부산이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 된 것이다. 이런 부산사람의 기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대중문화의 분야는 무엇보다도 노래라고 할 것이다. 누구나 즐기는데 별다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고 3분 내외라는 짧은 시간으로 쉽고도 간단하게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 흥이 많고 굵고 짧은 것을 좋아하는 부산사람의 기질에 가장 잘 맞는 대중문화라고 하겠다. 부산사람의 노래에 대한 사랑은 부산이 배출한 유명가수들에서 잘 드러나는데 1950년대 현인에서부터 현재의 아이돌 가수 정용화까지 무수히 많은 가수들이 있다. 그래서 가끔 부산의 가수 혹은 부산을 노래한 가수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는다. 부산을 노래한 가수는 먼저 부산 출신은 아니지만 부산을 노래한

히트곡을 부른 가수를 들 수 있다. 〈해운대 엘레지〉의 손인호, 〈경상도 아가씨〉의 박재홍, 〈부산갈매기〉의 문성재,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조용필은 부산 출신이 아니지만 부산사람이 그들의 노래를 사랑하여 부산에 노래비까지 세웠으니 부산이 자랑할 만한 부산을 노래한 가수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부산이 자랑할 만한 부산 출신의 가수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부산이 이고향지만 부산에서 활동하지도 않았고 부산을 노래하지도 않은 가수들도 많다. 예를 들면 문주란, 정훈희, 김수희, 이승환, 김건모 등이 그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부산에서 자라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었으니 그 또한 부산의 저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의 가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부산이 고향이지만 부산에서 활동하지 않았으며 부산을 노래한 히트곡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사람들이 부산의 가수로 생각하는 가수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대수, 나훈아, 최백호 등이 이들인데 부산사람이 이들을 부산의 가수로 생각하는 이유는 강한 부산사람의 기질이 성격에 드러난다는 것과 그 성격이

노래에 잘 드러나서 누가 들어도 부산사람이라고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부산의 문화적 저력은 부산이 한국의 대중음악사에서 서울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역사에서 드러난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에 부산은 해방 이후 자생적 음반산업의 발상지가 되었다. 도미도레코드와 미도파레코드로 대표되는 부산의 음반산업은 적어도 1950년대까지는 한국의 중요한 음반산업 인프라로서 수많은 가수들을 길러내고 히트곡을 생산하였다.(하지만 이것은 한국전쟁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부산에 집중되었기 결과적으로 발생한 일이지 지나친 과대평가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중음악사에 발신된 부산의 트렌드

부산이 한국대중음악사에 부산만의 트렌드를 발신하여 전국에 영향을 끼친 일은 세 번 정도 있었다. 그 첫 번째가 1985년 9회 MBC 대학가요제에서 동의대의 높은음자리가 〈바다에 누워〉로 대상을 수상한 이후 바다새, 여운, 도시의 그림자와 같은 부산의 통기타 음악 팀들이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에서 연이어 수상하면서 부산스타일의 통기타가 요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1977년 MBC 대학가요제가 시작될 무렵에는 1970년대 초반의 세시봉 스타일의 잔잔하고 소박한 통기타음악이 대세였다. 하지만 1985년 〈바다에 누워〉는 이전의 순수지향적이고 대학생 취향의 통기타음악을 뛰어넘은 것이었다. 대중적이고 팝적이며 리듬이 강한 통기타 음악으로 완전히 변신한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순수지향적 대학생의 통기타음악이었던 제1세대가 물러가고 대중지향적인 제2세대 통기타음악의 시

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강한 선명성을 좋아하는 부산의 기질은 1980년대 후반에 헤비메탈이라는 록음악 장르가 시작될 수 있는 좋은 토양이었다. 1987년에 부산에서 프라즈마가 결성된 이후 디오니서스, 아마게돈, 스트레인저 등이 활동하면서 부산의 헤비메탈씬은 서울, 인천과 더불어 중요한 지역으로 떠올랐다.(이 경우는 헤비메탈이 부산이 최초라고 보기는 힘들다) 서울에서 1996년부터 펑크음악과 모던록을 중심으로 인디음악이 새롭게 출현하여 크라잉넛과 노브레인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로 록음악의 판도가 바뀌어갈 때 부산에서 여기에 합류하려고 올라간 음악인들이 있었다. 앤, 에브리싱글데이, 레이니선, 피아, 타부와 같은 팀들의 음악은 모두 강한 부산다운 개성을 지닌 음악이어서 서울에서 이들의 음악을 ‘갈매기 공화국’이라고 따로 명명할 정도였다. 이 경우는 부산을 떠나 수도 서울에서 부산의 강한 개성을 드러낸 희귀한 사례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사를 갖고 있는 부산의 대중음악의 역사는 부산에서 의외로 천대받고 있는 것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필자가 부산의 대중음악사를 연구하려고 자료를 수집하려 해보았으나 가장 중요한 1차 문헌자료가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부산에서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부산의 대중문화를 기록한 매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심지어는 1977년에 창간된 주간지 〈부산국제〉도 부산의 대중문화는 다루지 않고 서울의 대중음악만 다루고 있었다. 서울중심주의의 심화로 이제는 어떤 지방에서도 대중문화 트렌드를 발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버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부산의 대중음악을 기록한 매체들이 소수 있지만 지역의 문화발신이 가능했던 1980년대 이전에 부산은 오히려 자신의 대중문화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산문화의 융성을 위한 토대, 부산노래

부산은 본래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토착문화와 섞어서 혼종의 문화가 발달한 한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지역이었다. 부산은 노령화와 제조업의 쇠퇴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천혜의 관광자원예다가 문화적 이미지를 첨가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시민이 스스로 부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적 자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화로 융성한다.”는 껍데기뿐인 정책 슬로건은 건어치우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부산의 문화를 융성시키기 위한 토대 구축부터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그 중요한 영역으로서 부산의 노래는 무척 중요하다.

1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남은 가장 중요한 자료는 결국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는 구술 채록이다. 부산의 음악인들(굳이 음악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스터플랜을 세워 전 부산문화인들로 확대해도 좋을 것이다)을 구술 채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소장한 물건, 사진, 음원 등의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음악문화를 향유했던 대중

들에게서 자료가 나올 수 있다.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악자료 확보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지금처럼 앉아서 가져다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료를 갖고 있을 만한 사람이나 단체를 찾아가 설득하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지불과 대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수집한 다음 이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보관, 정리, 연구, 열람, 대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중문화자료관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이 자료관은 지난 20세기의 박물관이나 도서관처럼 자료의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관은 용이하고 활용은 간편한 방법으로 누구나 적당한 과정을 거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 지은 공공문화 인프라가 잘 운영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운용할 전문 인력에 대해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집한 자료의 목적은 그것에서 부가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전문 인력과 부산시의 수준 높고 장기적인 문화정책일 것이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 대중문화자료관을 제대로 지어놓고 나서야 부산시와 전문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부산시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문화적 부가가치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낼 것인가를 비로소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명심하자. 구호나 정책이 먼저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의 마련이 먼저라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조업보다 몇 배나 어려운 것이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부산의 노래

일 시 2016. 12. 22(목) 오후 3시
장 소 감만창의문화촌 3층 배움방 2
사 회 김형찬 대중음악 저술가

좌담자 김창욱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위원
박철홍 동아대 실용음악학과 교수
장현정 호밀밭출판사 대표
정두환 음악평론가



사회자 (김형찬) 안녕하세요. 대중음악 저술가 김형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감 그리고] 23호 문화돋보기2 코너의 좌담은 '부산의 음악' 에서도 부산의 노래를 중심으로 다뤄보는 자리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현재 각자 활동하시고 계신 분야를 바탕으로 부산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환 저는 작곡 활동, 화요 음악 강좌, 오케스트라 예술 감독, 음악평론 등 30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부산문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부산은 문화의 노다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매일같이 전시와 공연이 열리고는 있지만 정작 본인이 참여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술을 하는 이들에게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불모지라고 할 수 있지만 불모지는 개척하면 됩니다. 미개척분야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 즉 개척하고자 하는 불모지는 노다지가 되는 것이죠.

김창욱 저는 작곡, 음악학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음악 분야에 비평 등의 글 쓰는 사람이 흔치 않았기 때문

에 음악 현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집필하고, 도서를 발간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지금은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문화관광 분야 정책연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궁핍했지만, 현재는 영혼이 궁핍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좌담 내용이 음악에 관련된 역사적 이야기도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한 물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2년 전쯤 역사문화대전이라는 작업 내용이 맞아떨어져서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철홍 네. 궁핍과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치열하게 현장에서 작곡으로만 활동하여 무용, 연극, 드라마 등의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궁핍했어요. 이후 실용음악이라는 분야가 학교에 신설되면서 현재는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가지게 된 생각은 예술음악 중심으로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음악이라는 영역이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음악 등과 같이 분야별로 나누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로 만나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정 저는 음악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에 락 밴드 활동을 했었습니다. 서울 홍대에



서 인디밴드로 4년 넘게 활동하고, 현재는 부산에서 출판 분야에 몸을 담고 있고요. 지금도 비주류, 독립문화, 인디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멜팅팟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 사람들이 내려와 정착한 곳이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가 혼종 되어있는 것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네. 다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부산 문화는 노다지다.” 말이 신선하게 들립니다. 대부분 부산은 문화 불모지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문화를 즐기지 않거나 낮추어 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과거 부산의 음악은 어떠했는지, 이를 바탕으로 부산 음악의 현주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김창욱 부산의 음악 중에서도 클래식 분야는 암울한 것이 현실입니다. 1955년에 부산에 음악과가 처음 생기고 1960~70년대에 대학에 음악교육과가 많이 설립되어 꾸준히 인력 양성이 되었습니다. 허나 2000년대 이후부터 지금은 예술과의 학생 미달, 통합합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갈수록 음악 분야도 안전하지 않아요. 대학의 인문, 사회, 예술 분야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위기의식을 가지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현재 악기점, 악기수리, 악보, 음악 서점 등은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음악 클래식과 관련된

쪽은 급격히 몰락하는 추세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장현정 부산의 음악 현황을 보면 음악이나 노래에 대한 담론화는 여러 매체를 통해 진행이 되었으나 수준이 아직 원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공연 감상평, 리뷰 형식이 대부분이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담론과 비평의 영역을 포함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좌담회 같은 자리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부산의 음악문화, 노래들을 진단해서 현황을 짚어보며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키워주고, 객관적인 비평까지 꼬집어 낼 수 있는 방식의 활발한 담론이 나올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문화나 인디문화에 대한 글을 보면 상당히 감상적인 글이 대부분이거든요.

정두환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다?!”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정보는 넘쳐납니다. 수용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술가들도 총체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영화의 전당에서 매년 여름마다 두레라움 윈드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하는데, 서울의 1회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우리는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에도 수용자들의 연주에 대한 갈망, 현장에서 연주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욕구로 공연을 열지만 이런 갈망과 욕구는 공연 효과에 카운트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수치화 될 수 없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열린 광장에서 토론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강의와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을 만나보면 또 다른 차원의 욕구를 만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더욱 활성화시키려면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앞장서 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획자 부재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장현정 부산에서 현인은 1호 가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레코드가 처음 녹음된 곳이 영도에 있고요. 이런

흐름이 80~90년대까지 이끌어 왔다고 생각해요. 부산은 근대에서부터 새로운 음악을 수용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서 유통시켰죠. 노래방 같은 놀이문화도 부산에서 처음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퍼진 것이고요. 여러모로 부산은 쫓아가는 곳이 아니라 선도하는 곳에 가깝다고 봐야죠. 부산에서 검증이 되면 서울에서 제대로 하는 방식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박철홍 오늘 좌담 주제인 부산의 음악(노래)에 있어서 부산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열린 개념의 문화로 접근하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부산이라는 지역성에 한정한다면 그 의미가 확대되어 나가기에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부산의 음악을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성에 한정지어서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해본다면, 대중음악 ‘돌아와요 부산항’의 부산항, 야구장의 ‘부산 갈매기’는 지명만으로도 부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수들 중에서도 현철, 현인, 나훈아를 비롯해서 작곡가 이상근 선생님, 윤이상 선생님 등 부산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조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네. 1990년대 이후 서울이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데 비해 갈수록 지역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역을 이야기하면 좁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열린 지역성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정 음악뿐만이 아니라 문화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들이 중앙 집중화가 심각하잖아요. 음악과 노래 분야도 중앙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부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도 꽤 오래된 인디 클럽, 재즈 클럽 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더라도 일단 부산만이 예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면 보수적

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공립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지속가능한 부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예술가들이 부산에서 버티지 못하고, 서울이나 외국으로 가는 것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여기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거나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공공의 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야겠죠. 지속가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람과 네트워크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그럼 부산이기에 가능했던 부산 음악의 열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 부산의 음악이 버팀목이 되었기에 현재 잘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홍 네.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는 부산 락페스티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녹록치 않아 외국 출연 팀에 지급하는 출연료가 대부분이며, 음향, 조명, 무대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산 락페스티벌은 성공한 케이스 중의 하나지만 계속해서 숨어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두환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은 국제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



이죠. 국제라는 용어로 인해 외국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행사의 의미가 일부 상실되는 부분도 생깁니다. 부산 락페스티벌은 잘 되고 있는 행사임에는 틀림없지만 또 다른 면을 보자면 락 마니아조차도 락페스티벌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냐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인프라를 키워나가는 문제는 관심이 적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눈여겨 본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통 성공한 음악회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지휘자에게만 관심을 갖는데 일본에서는 지휘자보다 총기획자에 관심을 갖고 섭외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기획의 의도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락페스티벌의 개최지도 다대포라는 너무 멋진 곳에서 열었다가 주민들의 소음 민원으로 삼락공원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조차도 설득 못시키는 음악회를 시민들에게 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박철홍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제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대안을 제시하자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행사에는 항상 부대행사가 따라가기 마련인데 국제 락페스티벌도 인디밴드 경연대회와 프린지 공연 등 많은 부대공연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두환 모든 행사는 메인 행사와 다른 부대행사들이 있는데, 부대행사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의견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사



들은 메인에만 매몰되어 있으며, 보통 국제 행사는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마루국제음악제를 보면 외국에서 누군가 온다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들의 동반 무대 및 활동 영역을 넓혀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데,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장이 열리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전문가 집단조차 이권싸움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대중음악, 합창, 가곡, 오페라, 인디, 국악 등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다 터놓고 담론이 될 수 있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음악은 부산다운 음악이 아니거든요.

장현정 부산이기에 가능했던 부산 음악의 강점을 뽑자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르적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경우, 방송사나 기획사의 의도대로 기획된 음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인기를 얻으려면 세계적인 흐름이나 예술계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동되면서 기획에 의해서 음악이 생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예전부터 이 흐름 속에서 한 발 떨어져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특히 재즈나 대중음악, 밴드, 바다음악, 스카, 레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부산에서 시작이 되었죠. 서울에서는 돈이 될 만한 음악들이 기획되어져 나오지만 부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만들어집니다. 80년대에 부산이 락 음악의 메카로 불리기도 했기 때문에 현재 부산 락페스티벌도 개최되는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나라의 문화가 성숙하려면 로컬 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회자 로컬 씬의 중요성, 자생성의 문제를 운영 철학의 기반으로 하면 여기저기에서 벌어질 것이고, 일관되게 기획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도시의 문화적인 힘을 기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두환 부산 문화의 강점은 헝그리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사람들은 시도하려는 시도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또한 부산 문화예술에서도 시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속가능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재단에서 할 역할이지 싶습니다. 부산문화의 전반적인 부분을 챙기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연구를 하고,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라는 것은 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속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지속가능할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부산의 음악문화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강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시도하는 것은 부산이 가장 잘하니, 음악에서도 시도해 보는 것이죠. 출연료도 합리적 프로세스나 표준계약서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최소한의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미 있는 음악회가 많이 생겨날 것이고, 새로운 판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창욱 네. 문화예술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악 분야를 볼 때도 작곡료, 출연료 등에 대한 합리적인 책정이 필요하죠.

장현정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 믿음이 없다보니 외부의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도 공공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악기 하나 연주하는데 교통비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 수십 년간 쌓아온 연주 기술 등에 대해 평가 절하하는 의식이 팽배하죠. 문화예술계 자체에서도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자들도 투명하게 잘 써야 하고요.

김창욱 맞습니다. 수용자가 있어야 문화가 형성되고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수용자는 누구인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 기획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와 적절하게 소통시



킬 수 있는 고리가 현저히 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 시나 기초자치단체 같은 곳에도 문화예술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폭넓게 포진해야 합니다. .

박철홍 추후에는 이런 좌담회 같은 담론의 장을 만들어 열린 공간에서 부산이라는 것에 한정짓지 말고 큰 개념으로 접근해 세부적인 대안책,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정두환 예술이라는 것이 수용자 중심인지, 예술가 중심인지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고민을 해보았지만, 접점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현장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현장 중심으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성숙될 때 그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다고 봐요.

장현정 부산의 음악, 넓게 문화예술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담론으로 이어져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실제 현장에서도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앞으로도 부산 문화, 음악을 즐기는 시민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담론의 현장, 예술가들의 역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살린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좌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맞추다

독자와의 교류 '눈을 맞추다'는
문화예술의 생생한 현장 뒷이야기, 모습 등
직접 찍은 사진을 실어
예술인들과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문화는 특별한 공간에서만 만날 수 있는가?
예술은 특정한 소수만 누리는 것인가?
누구나 쉽게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 가까이에서 쉽게 접하고
수시로 자주 만나면서 편해져야 한다.
그렇게 모두가 부담 없이 만날 때
문화는 생활의 일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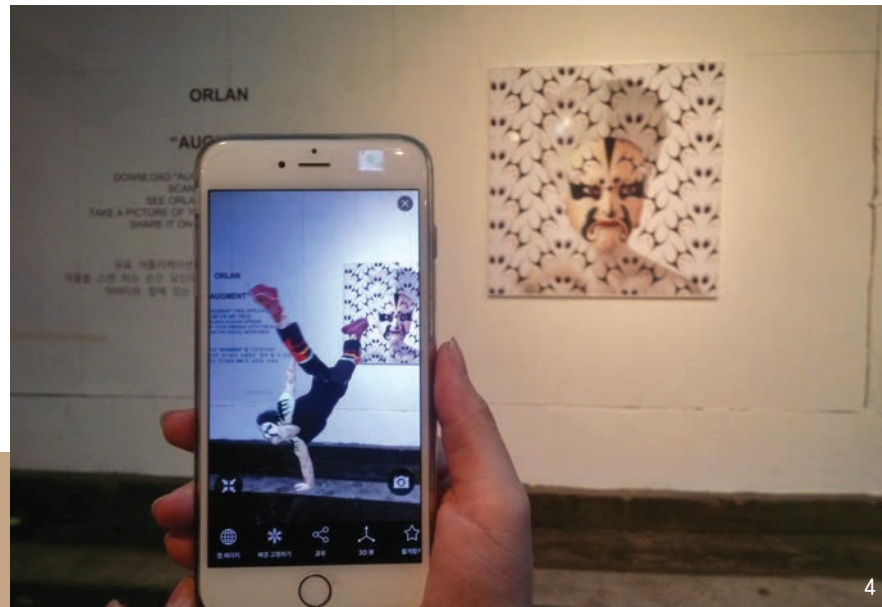
2



1



3



4

“경계 짓지 않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림은 벽에만(?) 걸려있고,
예술품은 앞에서 감상만(?) 하고,
미술은 아이들만(?) 배운다.
그림은 스마트 폰으로 재구성되고,
작품은 온몸으로 느껴야 하고,
어른은 아이들과 소통한다.
그렇게 고정되지 않으면 자유롭고
경계가 없으면 문화를 품을 수 있다.



5



6

1. 부산아트페어 / 사진 김혜옥
2. 청년아트페어 under35 / 사진 안수아
3. 홍티아트센터 투어 / 사진 김정숙
4. 2016 부산비엔날레 / 사진 조선경
5. 토요문화학교수업 / 사진 신혜진
6. 청년아트페어 under35 / 사진 안수아

모두의 축제,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페스티벌

글 | **고윤정** 부산문화재단 문화복지팀



“차이라는 꼬덕임, 사이라는 어울림”

동정적 시선에 감동만을 요구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이지만 사라져 가는 작은 영화제들,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성소수자,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갈등, 성별 혐오로 호칭되며 격화되고 있는 젠더 문제 등 문화다양성은 문헌적 개념이 아니라 현대적이며 굉장히 생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직접 만나서 눈빛을 마주하다 보면 생생한 진심을 전달받게 된다.

2016 문화다양성 사업 공감 메이커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페스티벌

- 기 간: 2016년 11월 8일(화) ~ 11월 13일(일)
- 장 소: 서면 일대(놀이마루, 주디스 태화 인근) 등
- 행사 프로그램
 - 사전 이벤트: 한가지 약속, 김유리의 지구인
 - 넷 스테이지: 게릴라 퍼포먼스, 네트워크 부스, 네트워크 파티, 오프닝 특강
 - 맵 스테이지: 잇음 영화제 이음, 어둠속의 카페, 정상밖 정상가족, 세대대면, IN주민
 - 부 대 행 사: 드림 페스티벌, 문화다양성 도서전, 문화다양성 포스터 전시



문화다양성, 진정한 소통을 위한 출발

문화다양성 사업 담당 5년차. 이주민과 선주민간 상호 교류에 치중한 지난 4년의 틀을 깨고 올해는 인종, 민족, 장애, 성, 세대, 가족 문화 등 문화다양성 영역을 더욱 확장하라는 과업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다. 문화다양성 개념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며, 내가 발 딛고 있는 부산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막막했다. 문화다양성은 문헌적 개념이 아니라 현대적이며 굉장히 생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선언문에서 벗어나 왜 지금-앞으로 더욱 더, 문화다양성이 중요한지 살펴보려 했다. 책상에 앉아서 있어 봤자 펜대만 굴러지고 결국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 외에는 뽀족한 수가 없었다. 미팅을 잡기 위해 전화를 드리면 대부분 문화다양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 하셨지만, 직접 만나서 눈빛을 마주하다 보면 생생한 진심을 전달받게 되었다. 동정적 시선에 감동만을 요구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이지만 사라져 가는 작은 영화제들,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성소수자,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갈등, 성별 혐오로 호칭되며 격화되고 있는 젠더 문제 등 어느 하나 쉽게 넘길 수 없는 주제들에 관해 의논했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 무엇을 해보면 좋을지 즐거운 상상을 했다.

문화다양성 15도 비틀어 보기

그렇게 만난 실행 위원들 15명, 문화이음에 참여했던 41개 기관 실무자들과 정한 올해의 목표는 바로 '문화다양성 15도 각도 정도로 비틀어 보기'였다. 추진 전략은 마음이 맞닿은 사람들과 연대를 이루어 보는 것으로 사업 담당자의 주요한 역할은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특히, 문화이음 프로젝트가 올 한해 진행하면서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6가지 주제별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어보았다. 며칠 동안 사람들의 이름을 쪽 적어 놓고 퍼즐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맞춰보면서 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꽤나 고민을 했다. 장애인의 여가와 배리어프리, 다양성 영화제, 문화다양성 교육, 세대 이해, 세계 문화, 가족의 다양성 6가지 주



제로 어떤 팀은 단박에 같이 해볼 만한 주제들을 찾아냈고, 또 어떤 팀은 서로의 편견을 확인하면서 긍정적인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다.

올해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페스티벌은 사실 이 문화이름에 참여한 팀들이 제안하고 함께 구현해보았으면 좋겠다고 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너무 프로젝트 개수가 많아서 이게 가능할지 두렵기도 했지만, 재단이 모든 것을 다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프로젝트마다 기획자가 있고 함께 하는 기관들이 있기에 작심하고 펼쳐보았다. 잘되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 도움이 되고, 안되더라도 함께한 기관끼리 서로 경험은 남겠다 싶어 이러나저러나 처음 하는 페스티벌 치고는 남는 장사겠다 했다. 문제는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하는 점이였다. 기존에 차별과 편견을 언급한 사회복지적 방식이나 사회운동적 방식이 아닌 '문화적 방식'을 찾아야했다. 사람들이 만나서 쉽게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고, 때로는 구별과 편견을 우회하고 유쾌하게 조롱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협력하는 기관 및 사람들과 수차례 고민했다. 기존의 것을 낫설게 보도

록 노력했고, 자신의 소수문화를 드러내려는 이들을 지지하고 문화다양성이 무엇인지 같이 공부하면서 사업 기간과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처음 시도했던 것이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페스티벌' 이었다. 시작 전 우려도 많았다. 국정농단 사태로 홍보를 해도 묻히기 일쑤였고, 해보려고 하는 사업을 가급적 다 담아보려 하다 보니 프로젝트 개수가 많아 힘이 부치기도 했다. 그래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홍보도 많이 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성황리에 페스티벌 막이 내렸다. 총 44개 기관이 참여했고, 10,740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문화다양성의 긍정적 고민, 네트워크 페스티벌

이번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지점은, 부산이 해양 도시로 오래 전부터 외국 문물을 먼저 받아들였고, 피난민들을 포용했던, 그야말로 문화다양성의 도시라는 점에서 어느 특정한 장소와 날짜에는 타인의 시선에 아랑곳 없이 자신의 고유성을 마음 놓고 드러낼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점이였다. 그 차원

에서 페스티벌 행사 중 네 스테이지가 기획되었다.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를 밖으로 표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소수자들이 참여한 게릴라 퍼포먼스와 네트워크 부스가 운영되었다. 맵 스테이지 행사로는 여러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준비한 프로젝트로 시각 장애인의 환경을 온 몸으로 체험해 보는 어둠속의 카페, 부산의 사라져 갔거나 시도되지 못한 영화제인 이주여성-퀴어-장애인 인권영화제를 되살려보는 잇몸 영화제 이름, 세대 갈등을 주제로 한 딱까리*꾼대 워크숍,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타인의 아버지 60명을 인터뷰하는 부전자전 전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여주는 잘자리 오픈 하우스 파티와 이주민의 삶에 대해 고민해보는 IN주인 프로젝트로 북한 음악 살롱, 이슬람 문화투어, 부산 사할린 동포 아카이브 전, 다국적 시낭송회가 진행되었다.



사회적 여건으로도, 행정적인 절차로도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젝트였지만 네트워크 페스티벌을 하면서 정말 크게 얻은 것은 함께한 기관들의 진심을 확인했고, 함께 고민한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는 '성공의 경험' 바로 그것이었다. 앞으로 더욱 더 연결된 네트워크를 더 탄탄하게 구축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페스티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16 부산 문화다양성 선언문

1. 부산은 문화다양성 도시를 지향합니다.
2. 부산은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과 혐오를 반대합니다.
3. 부산은 누구든 억압받지 않고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4. 부산은 해양성을 살려 다양한 문화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힘씁니다.
5. 부산은 교육과 공공정책 수립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합니다.
6. 부산은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킵니다.
7. 부산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8. 부산은 부산에 사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문화예술 장르별 비평

속살을 보다

092

「창작발간」 지역 출판이 나아갈 길 황선열

096

「시각예술」 핵몽을 따라 걷다 김소라

100

「예술기획」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만남 서승우

104

「공연예술」 소극장, 새로운 연극을 향하여 <2016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전혜림



지역 출판이 나아갈 길

글 | 황선열 신생인문학연구소 연구실장, 평론집 『동양시학과 시의 의미』

지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책을 펴낸다면, 더 좋은 지역 출판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 출판사가 나아갈 길은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살리는 기획 출판을 꾀하는 데 있다. 부산의 전통 문화, 부산의 해양 문화, 근대 유산, 부산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책을 기획한다면, 지역 출판사는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독창적인 출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특성

지역(地域)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공간의 경계를 의미하는 말이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곳에만 있는 특정한 문화가 있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지역은 그 지역 공간만이 가지게 되는 특수한 조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강남의 굴이 강북에서 자란다고 해서 그것이 강남의 굴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특정 지역은 그 지역만이 갖는 고유한 빛깔이 있는 것이다.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보편적 속성은 있기 마련이다.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마련이지만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은 중앙의 반대 개념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

지만, 국가라는 구조 속에서는 중앙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지역과 중앙이라는 개념은 다분히 자본과 권력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하나의 시스템 속으로 포섭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중앙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가 이른바 지방 자치의 활성화이다. 지방 자치는 권력의 중앙 집권화 현상을 막는 일차적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민정부 시절 추진된 지방 자치가 정치, 경제, 문화의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 출판은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 지역 출판사 우수 도서

출판사	도서명	저자	장르
산지니	패션, 영화를 디자인하다	진경옥	대중문화
해성	어른이 읽는 만큼 아이들이 자란다	공재동	문학
소요-You	시민의제사전 2016	나락한알 편저	사회과학
전망	여한 이태길 선생의 삶과 정신	이태길	시, 산문
무량수	다정의 티 스케치	박기봉	수필
미디어 부산협동조합	꿈 n JOB	양의주, 송동선, 김철하, 편도옥, 김정기 공저	교육

이런 변화의 상황 속에서 지역 출판은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출판문화 및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출판사와 작은 도서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소재 출판사의 도서를 대상으로 우수 도서를 선정하고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 기부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연간 5천만 원의 자체 기금을 마련해서 지역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을 선정하여 해당 출판사에 발간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도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역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 중에서 우수 도서 여섯 권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여섯 권의 도서는 나름대로 지역이라는 특성을 잘 살린 책들이다. 여섯 권 중에서 세 권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쓴 책이고, 나머지 세 권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지역의 인물과 문화가 중심이 된 글을 편찬한 책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이들이 쓴 글을 지역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것은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패션, 영화를 디자인하다』(산지니)는 패션전문가가 영화 속의 패션을 통해서 패션의 발전과정을 살핀 독특한 책이다. 『다정의 티 스케치』(무량수)는 차 문화의 발생지와 차 문화의 다양한 체험들이 잘 녹아있는 책이다. 『어른이 읽는 만큼 아이들이 자란다』(해성)는 지역의 동화작가가 읽은 다양한 동화책을 통해서 어른과 아이들이 소통하는 길을 모색한 책이다. 이 책들은 지역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읽힐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출판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지역 출판사는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인물이나 문화, 단체 등을 발굴하여 책으로 출판할 때, 더 좋은 기획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쓴 책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거주한다는 의미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책을 펴낸다면, 더 좋은 지역 출판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역 출판사가 나아갈 길은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살리는 기획 출판을 꾀하는 데 있다. 작년에 선정된 도서 중에서 「공존이라는 모험」(소요-you), 「우포늪 아이들」(해성), 「포구를 건너」(예린원)는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책들이었다. 부산 지역이라는 공간을 염두에 둔다면 낙동강, 해운대, 영화의 전당과 같은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공간이 있을 터이다. 지역 출판사는 해양의 특성을 살린 문화에 대한 기획, 부산에서만 이어져오고 있는 향토문화에 대한 기획을 해서 출판해야 할 것이다. 부산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책, 부산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기획물이 지역 출판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울의 출판사의 경우는 출판사에서 직접 기획팀을 만들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특정 작가나 전문가들에게 원고를 청탁을 해서 기획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산의 출판사도 좋은 기획물을 만들기 위해 먼저 기획팀을 만들고, 그 기획팀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획물을 만든다면 부산의 지역을 잘 살린 책이 기획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전통 문화, 부산의 해양 문화, 근대 유산, 부산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책을 기획한다면, 지역 출판사는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독창적인 출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출판사는 단순한 홍보용 전단지판을 만드는 수준의 기획을 할 것이

아니라,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기획을 해야 할 것이다.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지역 출판사에서 기획한 계획을 심사해서 그것이 책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부산의 문화나 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획물을 만들 때, 자연적으로 지역 출판사는 지역에서 제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산 지역에서는 구청별로, 혹은 지역 신문사별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기획을 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작가들과 함께 지역을 조명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관련 단체의 실적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긴밀한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부산 문화재단과 지역 단체가 문화 전반 사업으로 일원화해서 부산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호 연대 속에서 이루어진 기획물을 출간해서 지역에 보급해야 할 것이다. 지역 출판사와 부산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해서 하나의 기획물을 만든다면 더 전문적이고, 유익한 기획물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 선정된 도서 중에서 『꿈 n JOB』(미디어부산 협동조합), 『시민의제사전 2016』은 부산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기획물이라 할 수 있다. 『꿈 n JOB』은 해양도시 부산의 미래에 어떤 직업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직업인지를 제시하는 책이고, 『시민의제사전 2016』은 부산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에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갔던 다양한 의제들을 모은 책이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역의 현안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한 글을 모은 책이라는 점에서 지역과 지역의 경

계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직접 기획한 책도 의미가 있지만, 부산 지역의 인물을 발굴한 『여암 이태길 선생의 삶과 정신』(전망)은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지역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지역 출판문화가 갈 길을 잘 보여준 책이다. 이 책은 자료 발굴에서 조사까지 부산 지역의 학자 두 분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자료집으로 묶은 것이다. 여암 선생은 함안 출신의 독립 운동가이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였고 광복회 회장을 하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항일 정신을 심어준 분이다. 부산 지역의 후학을 양성한 업적뿐만 아니라 부산의 큰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낸 분이다. 이런 분의 삶을 조명하는 일은 부산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관련 자료와 함께 만들어서 부산 전역에 배포해서 부산의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기본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출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책의 발간 작업은 지역 단체와 문화재단, 혹은 지방 행정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지역 출판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출판사는 지역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기획물을 만들어야 하고, 그 기획물은 지역의 특수성을 넘어서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좋은 기획물은 지역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지역 출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독립출판물시장의 자생력에 대한 생산적 논의

부산에도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는 독립출판서점들이 있다. 그 곳에서 부산작가들의 작업을 만나면 고향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갑다. 부산의 어느 동네를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그린 만화를 읽으면 나는 낮선 곳에서 친구를 만든 것 같을 것이다. 에어비앤비가 여행은 그 곳에서 살아보는 거라던데, 나는 책

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을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잠깐 살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사람으로서 나는 더욱 이 서점들에서 부산의 이야기를 찾고 읽고 싶다. 샵메이커즈, 책방쑈, 업스테어, 산복도로책살롱 그리고 그 외의 내가 모르는 부산의 독립출판서점들을 방문해보시라.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도 보태어주시라. 당신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책과 독서경험을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여기까지 글을 쓰고 나니 내가 이토록 낙관주의자였던가 싶다. 물론, 독립출판시장의 비약적 성장과 찬란함의 한 편에서는 우려와 자조의 목소리도 생겨나고 있다. 독립출판물시장 안에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형성된다든지, 인기와 권력구조가 보인다든지, 실험은 끝났고 한계에 봉착했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독립출판은 거품이었고 이제 사그라질 것인가? 창작자들은 계속 이 시장을 믿고 자기 작업을 해나가야 할까. 독립출판서점들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이런 모든 담론과 현상은 지금껏 정상적인 성장단계를 보여준다는 점 때문이다. 초기에는 시장을 만들고 스스로 커지는 것을 감당하는데 벅찼던 창작자들 그리고 유통 배급업자들, 서점 주인들이 이제 이 상황을 관찰하고 서로 모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이 시장이 살아서 스스로의 생명력을 연장해가고 있다는 믿음과 안도감을 준다. 부디, 독립출판계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나는 그거 커서 무엇이 되던 원이 없겠다.

핵몽을 따라 걷다

글·사진 | 김소라 철학박사, 미술문화비평지 비아트 에디터

1. 기행문을 시작하며

핵몽을 따라 걷다. 〈핵몽〉은 지난 11월,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에서 열렸던 전시의 제목이다. ‘핵’과 ‘원자력’ 문제는 우리 사회에 두 가지 꿈으로 겹쳐 있다. 하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줄 것이라는 꿈이다. 다른 하나는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이른바 ‘핵 없는 세상’에 대한 꿈이다. 이 모순된 꿈이 우리 사회에 공존한다. 정철교 작가도 참여했던 〈핵몽〉이라는 전시의 제목을 이 글에서도 이어 사용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정철교 작가의 이번 전시 〈서생, 그곳을 그리고 그곳에 펼쳐다〉가 우리에게 펼쳐놓은 길, 그 길에서 만난 것도 바로 이 두 꿈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서생’은 작가가 현재 사는 곳이다. 그 일대는 국내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기도 하다. 정철교 작가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곳의 풍경을 오랫동안 화폭에 담아왔다. 지난해에 〈고장 난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그 작품들을 여러 갤러리에서 선보인 바 있다. 올해 전시는 갤러리가 아니라 서생면에서 열렸다. 작가의 자택을 비롯하여 총 열 군데의 공간에 작품들이 걸렸다. 그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관람객은 이 마을들을 모두 돌아다녀야 한다. 걸어서 다닌다면 네다섯 시간은 족히 걸리는 여정이다. 그림들이 걸려 있는 장소들을 찾아다니는 일이 마치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글은

작품에 대한 리뷰라기보다는 일종의 기행문이다. 작품들을 찾아다니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2. 울주군 서생면 덕골재길

행정구역상 울산에 속해있는 ‘서생면’은 부산과 울산의 경계지점에 있다. 전시를 보기 위해 그곳으로 가는 마음이 무거웠다. 이미 여러 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그 일대에 또 다시 신고리 5·6호기의 추가 건설이 확정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9월에는 경주에서 역대 최강의 지진이 일어나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위험이 온 국민을 공포로 떨게 했기 때문이다. 10월 하순, 하늘은 맑고 날씨는 쾌청하며 결실의 계절답게 차창 밖 풍경은 참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웠다. 국도의 굽은 길을 돌고 돌아 가다보니 어느새가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둥근 돔이 끼어든다. 마치 이슬람사원의 돔을 닮은 흰색 건물이 저 멀리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목적지에 가까웠음을 알아차렸다

울주군 서생면 덕골재길, 제법 높은 언덕에 위치한 정철교 작가의 자택, 그 2층에 있는 작은 전시공간에서 드디어 작품들과 만났다. 신암마을, 신리마을, 골매마을, 나사마을 등 작가가 평소 산책을 하거나 스케치를 하기 위해 다녔던 마을의 풍경들이다. 대부분의 그림들에는 원자력발전소의 돔들과 송전탑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실상 어느 각도 어느 시점에서든 그것들을 피할 길



신암리 풍경

이 별로 없다. 마을길에는 사람이라고는 없다. 간혹 버려진 개들이 등장할 뿐이다. 특유의 붉은 선들과 강렬한 원색들이 화면을 진동시키고 있지만 풍경은 스산하고 위태롭다. 무엇보다도 화면을 압도하는 것은 붉은 색이다. 작가는 작업을 붉은 색으로 시작한다. 무채색 계열로 밑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혀나가는 보통의 방식과 다르다. 작가는 굵은 붉은 색 선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그 선들을 되도록 살리면서 형상들에 색을 입힌다. 노란색, 초록색, 푸른색 등의 원색들이 작렬하고 있지만 화면을 지배하는 것은 역시 붉은 색조다. 시각예술에 있어서 색채는 말 없는 언어다. 그것은 아무런 서사적 이야기를 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전달한다. 정철교 작가의 붉은 색도 마찬가지다. 붉은 색은 무척 다른 감정들을 불러내는 색중의 하나다. 문화에 따라, 혹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붉은 색은 다양한 느낌으로 경험된다. 그것은 때로 생명력과 욕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험이나 침울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정철교 작가의 붉은 색은 어느 쪽일까?

3. 신암마을, 신리마을, 명산마을, 나사마을

자택 전시장에서 이 강렬한 풍경들에 매혹되어 한참을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지점이라. 전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두 작가와 함께 다른 아홉 장소에 전시된 그

정철교 작품전 〈서생, 그곳을 그리고 그곳에 펼쳐다〉

- 전시일시: 2016년 10월 1일(토)~31(월)
- 전시장소: 서생면 일대
- 정철교작가의 집, 서생우체국, 서생면사무소, 서생농협, 서생의원, 금장생복집, 피자삼촌, 효재손칼국수, 케익카페 류 스토리, 도 갤러리 카페 등

림들을 보러 출발했다. 우선 서생면사무소 일대로 향했다. 서생농협, 서생의원, 서생우체국, 금장생복국집 등을 둘러보았다. 그곳들에는 자택 전시장에서 보았던 것과 닮은 서생면 일대 마을의 붉은 풍경들이 두세 점씩 걸려있었다. 그것들은 공적이고 딱딱한 공간에 마치 부적처럼 벽에 붙어있으면서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서생우체국에서 본 그림 두 점이 인상적이다. 하나는 푸른색 기와를 얹고 있는 ‘신암문구점’을 그렸다. 이 문구점은 우리가 우체국을 찾아가던 길에 보았던 건물이다. 도로의 두 면에 접해있는 이 단층 건물은 창문을 비롯하여 모든 문이 닫혀있고, 셔터들도 완전히 내려져있다. 아이들이 드나들었던 흔적도 없다. ‘신암문구’라고 적힌 간판만이 이 적막하고 스산한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간판이 어떤 ‘부재’의 공허함을 더 부추기는 듯하다. 두 번째 그림은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아저씨의 모습을 담고 있다. 마을길에서 우연히 작가와 마주친 집배원 민병섭씨. 인적이 드문 바닷가 마을을 오토바이로 종횡무진 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한다. 이 아저씨의 존재는 이 스러져가는 마을들에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는 핏줄, 혹은 생명줄 같은 느낌을 준다. 화면 속 아저씨는 붉은 선으로 온통 금이 가 있는 노란 담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아저씨의 얼굴 옆으로 탐스러운 꽃들이 담장을 넘어오고 있다. 나중에 이 장면을 찍은 당시



1. 신암리 양식장, 2. 신안문구

의 사진을 보니 이 꽃들은 없었다. 작가가 상상을 통해 그려 넣은 것이다. 작가는 아마도 집배원 아저씨의 웃음과 이 꽃들을 통해 '희망' 같은 것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다. 이 지대에서 마지막으로 간 곳은 '금장생복국집'이다. 작가가 평소 자주 애용하던 식당이라고 한다. 그곳에도 식당 주변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 여러 점 걸려있었다. 마침 그 곳에는 우리처럼 정철교 작가의 작품들을 보러 다니는 일종의 단체 순례객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도 아마 우리와 같은 길을 지나왔을 것이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그림들을 보았을 것이고 우리와 같은 풍경을 보았을 것이다.

4. 핵몽의 풍경

우리가 본 것은 단지 그림들만이 아니다. 그림을 보기 위해 장소들을 찾아 걷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곳의 실제 풍경들을 보았다. 서생면사무소 옆에서는 '신고리 원전 민간 환경 감시기구' 건물을 보았고, 우체국에서 북국집을 찾아가던 해변에서는 위기 상황에 행해야 할 안내 표시판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한국원자력수자원공사 자원봉사단'이라는 글씨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바닷가 청소를 하고 있는 일군의 사람들도 보았다. 원전과 초 근접해 있는 이 위험한 바닷가에서 여전히 운영 중인 화려한 횃집도 보았고, 바다와 아주 가까운 곳에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빌라와 펜션들도 보았다. 스러져 가는 오래된 집들과 새로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혼란스러운 풍경들. 무엇보다

다도 사람이 사라지고 삶의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 '부재의 공간'과 그 공간들을 감싸고 있던 무거운 공기를 잊기 어렵다. 작가가 이렇듯 작품들을 마을 곳곳에 펼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작가는 이 실제의 풍경들을 보고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그래서 작가는 '그곳을 그려서 그곳에 펼친' 것이다.

나머지 장소들은 일출로 유명한 간절곶으로 가는 길에 있다. '효재손칼국수' 집에는 효재손칼국수집을 그린 그림이 있었고, '케익카페류스토리'와 '피자삼촌'에서도 그 주변의 풍경을 담은 그림들을 보았다. 이른바 '관광지'에 가까워져 올수록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졌다. 그들에게서 원자력발전소나 지진 혹은 쓰나미와 같은 것에 대한 염려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들은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으로 바다나 멋진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실내에 앉아 세련된 음식과 음료들을 즐기고 있다. 사실, 이러한 풍경은 의외였다. 부산에서 이 곳 서생을 찾아오던 길에 느꼈던 그 무거운 긴장감은 여기에 없었다. 이 글의 서두에서 말한 '핵몽', 즉 그 두 가지 모순된 꿈을 이곳에서 확인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서생 일대에서 예전의 그 소박하지만 풍요로웠던 바닷가 마을의 생생함을 제거했다. 사람들이 떠나고 스러지고 있는 마을 풍경을 목도했지만, 또 한편 그러한 사실에 개의치 않는 도도한 면면이 겹쳐져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 걷은 '핵몽'의 풍경이다. 그런데 현실화된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이다.



효재손칼국수

5. 골매마을, 순례를 끝내며

도자기 작품들을 전시하고 커피도 파는 '갤러리 카페 陶'를 마지막으로 작가의 작품을 찾아다니는 순례가 끝났다. 우리는 거기서 이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에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 신고리 3·4호기의 정문을 가장 가까워서 볼 수 있다는 골매마을로 향했다. 꼬불꼬불하고 좁은 길을 거처서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달했다. 바닷가에 서면 신고리 3·4호기가 바로 건너편에서 보인다.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그 철옹성같이 굳게 서있는 원자력발전소만이 아니었다. 거기서 만난 것은 수 십 채의 빈집들이다. 집 내부에는 갖가지 잡동사니와 가재도구들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다.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던 당시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 이 마을을 채우고 있던 삶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들은 1970년대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때문에 고리마을에서 이곳으로 강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또 다시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만 했다. 그 자리에는 새로 건설될 신고리 5·6호기의 취수장과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그들은 대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위해, 대도시의 끊임없는 에너지 소비를 위해 이리저리 내몰린 것이다. 연민과 슬픔을 넘어 마치 죽음을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았다. 이러한 감정은 발전소를 배경으로 서 있는 두 그루의 소나무에서 절정에 달한다. 정철교 작가가 2012년에 그린 골매마을 그림에는 이 두 그

루의 소나무 아래에 작지만 예쁜 사당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소나무 아래에 사당이 없다. 사람들이 내몰린 마을에서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던 사당도 허물어져 없어진 것이다. 파괴되어 남은 잔해가 시퍼런 비닐 아래에 묻혀있다. 무덤 같다. 죽음이다. 그 순간 그 곳에서 보는 바다는 잿빛이었다.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도, 건너다보이는 발전소도, 빈집으로 가득한 마을도 모두가 회색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탈색되어 회색 빛으로 변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정철교 작가의 붉은 그림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탈색되어 가는 이 순간,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색 뿐이다. 그것도 꿈을 거리는 붉은 색 말이다. 잿빛으로 스러져가는 풍경을 반복적으로 바라보아야 했던 작가에게 발광하는 원색들과 꿈틀거리는 붉은 선들에 대한 갈망은 어쩌면 본능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위에서 "정철교 작가의 붉은 색은 어떤 상상을 품고 있을까?"라고 물었다. 작가의 붉은 색은 위험에 대한 경고나 불안의 표출이라는 의미에 머물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생동감과 연속성이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인 동시에 그것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작가의 욕망과 희망이 겹쳐진 붉음이라. 〈서생, 그곳을 그리고 그곳에 펼치다〉. 작가가 펼쳐놓은 그 길의 끝에서 결국 마주하게 된 것은 나의 마음이다. 작가의 강렬한 희망에 응답하고 공감하는 마음.

나사리 펜션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만남 ‘벽사유희’

글 | 서승우 영화의전당 공연사업팀장
사진제공 |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벽사유희

- 쇼케이스 : 2016년 9월 24일(토), 수영사적공원 일대
- 귀신을 쫓고 만복을 기원하는 놀이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2호, 수영지신밧기 재창조프로젝트
- 주최: 광안리사람들, 협력: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수영지신밧기보존회, 무브먼트당당
- * 부산문화재단 지역특성화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 프로젝트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22호, 수영지신밧기

수영지신밧기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22호로 250여 년 전부터 부산 수영동 일원에서 정초에 가가호호를 돌며 마을의 안과태평과 주민들의 제액초복을 빌어 주던 의례이자 지신을 밧으면서 지신풀이 가사를 창하며 춤과 익살, 재주를 연희하는 것으로, 마을의 지신에 대한 공연적(供演的) 성격을 띤 놀이이기도 하다. 또한 정월 대보름날 행해지는 민속놀이인 수영야류의 공동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의 성격을 가진 걸립때 또는 걸립굿이라고도 한다.

쇠, 징, 장고, 소고 등 30여 명의 악사와 농악놀이의 흥을 돋우기 위해 등장하는 사람들인 잡색 20여 명이 마을을 돌며, 당산풀이, 우물풀이, 인사굿, 마당밧기, 성주풀이, 조왕풀이, 장독풀이, 곡간풀이, 정낭풀이,

삼작풀이, 판놀이, 기소각제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영지신밧기의 가락은 단아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소리도 타 지역에 비해 시김새-선율을 이루는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임무를 띤 일종의 장식음-가 적어 깨끗한 경상도 메나리조의 소리 길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특히, 모든 의식을 끝내고 마지막에 종이로 만든 기를 태우는 기소각제(旗燒却祭)를 하는데, 이는 그 해 모든 지신밧기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지신밧기에 사용했던 기를 불사르면서 액을 태워 보내는 일종의 송액(送厄)의례로, 제의적 성격을 띤 민간신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성행했던 것도 수영만의 특징이다. 또한 보유자들도 수영야류 등의 전문 예인들로 구성되어 악가무 기량이 뛰어나다.



새로운 형식으로 탄생한 지신밧기, 벽사유희

이러한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인 지신밧기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전통놀이 연희자, 기획자들이 함께 음악과 길놀이, 춤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한바탕 놀이를 통해 잃어버린 공동체의 심성과 가치를 되살리는 새로운 형식의 거리연회를 선보인다니 어떻게 현대화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간의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가면 수영팔도시장, 1969년에 종합시장으로 설립된 이 시장은 언제 봐도 정겨운 곳이다. 아마 팔도라는 이름 때문일 텐데 전국 팔도가 아니라 이 시장 건물을 준공하신 분의 이름이란다. 점심식사 전이라 가끔 가는 칼국수집에 들러 손칼국수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고 시장 입구로 향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잡고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 약속한 시간이 되자 긴 나발 소리와 함께 ‘길놀이’가 시작되었다. 역사적인 ‘벽사유희’ 초연이 시작된 것이다. 가장 먼저 행렬을 이끄는 꼭두쇠를 비롯해 악사와 잡색들의 복장과 악기 구성이 눈에 띄었다. 약간 익살스런 모습으로 분한 잡색들은 멀치아가씨, 경찰, 국회의원, 중학생 등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은 원래 지신밧기에 나오는 탈을 쓴 각시, 머슴(포수), 양반, 하등의 현대 인물인 듯하다. 또한 쇠, 장고, 북, 소고 등의 악사와 연희자(잡색) 16명을 비롯해 부산에서 활동 중

인 인디 브라스밴드인 스카웨이커스의 트럼본, 트럼펫, 색소폰 주자들이 함께 길놀이의 흥을 돋우었다.

전통적으로 길놀이는 본 놀이에 앞서 마을의 거리에 펼쳐내는 놀이 일체를 일컫는다. 마을 주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공동체신을 맞이하는 길에서는 곧 신의 행렬이 된다. 신과 인간이 길 위에서 한판 푸지게 펼쳐내는 신명이고 축제인 것이다. 앞 놀이로서 길놀이는 사람들이 모두 뒷치배 역할을 하며 놀이 행렬을 따르므로 자연스레 대동놀이가 되어 마을 전체를 뒤집는 축제적 변혁이 일어나고, 나아가 제의적 구조 속에서 신탁(神託) 행위가 나타난다. 시장 중앙 사거리에 도착한 길놀이는 벽사유희 전체 공연과 놀이를 진행하는 안내자이며 신명 넘치는 재주꾼 꼭두쇠의 인사와 함께 여는 마당이 이어졌다. 길놀이를 하는 주민들과 함께 복을 받기 위한 주문을 배울 수 있었다.

“밧자. 밧자. 다 같이 밧자. / 지근지근 자근자근 놀러 밧자. / 막자. 막자. 다 같이 막자. / 잡귀잡신 쫓아내고 복을 받자. / 살자. 살자. 다 같이 살자. / 복 나누고 덕 지어서 함께 살자. / 잡귀잡신 소멸하고 만복은 이리로”

신나게 주문을 외운 후 길놀이는 수영사적공원 남문에 도착하여 또 한 번 대동놀이와 함께 주문을 다 같이 외울 수 있었다.

수영사적공원은 조선시대 경상 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있었던 곳으로 1968년 공원으로 지정되어 수영공원으로 개장 후 1995년부터 새롭게 단장하여 역사와 교육의 장으로 부산의 해양 민속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 문화 유적 공원이다. 이곳에는 경상 좌도 절도사영 수사 등의 공덕비군과 안용복 장군 사당 및 동상이 있는 역사적인 곳이다. 수영성의 수호신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서 신을 모시고 놀이를 한다는 것은 신 앞에서 평등함을 추구하고 선언한다는 것이며 차별을 깨부수는 열린 곳판이라 할 수 있다. 대동놀이로서 길놀이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이 되고 지침이 되며 대동과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고 수단인 것이다. 곧 길놀이는 천연기념물 제311호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앞에 도착하였다. 푸조나무 앞에서는 당산풀이가 이어졌는데 벽사유희 전 과정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다. 대동 길놀이에 감동한 푸조나무 대신이 내려온다는 설정으로 사

람들은 예를 갖추어 나무대신을 맞이하고 한바탕 흥을 돋우는 한바탕 굿판을 벌이는 중간에 중학생이 나타나 현대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아 마치 지신밟기 중 주문을 외우는 행위와 비슷한 랩을 래퍼와 함께 하기 시작한다. 순간 전통악기와 현대악기가 서로 대결이라도 하듯 소리를 뽐내고 그 사이 중학생과 래퍼는 푸조나무 대신에게 소원을 빈다.

한바탕 랩 공연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복을 기원하는 주문을 외운 후 길놀이는 정낭(뒤탈)으로 향한다. 정낭 앞에서 사람들은 쾌변을 위한 기도를 하며 힘주는 장체조를 함께 배운다. 동작을 하나하나 배우며 웃고 즐기는 사이 정말 장이 튼튼해지는 기분이 든다. 이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추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덧배기 댄스, 이 춤은 몸 구석구석 끼있는 잡귀와 액운을 내쫓아 낸단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열심이다. 드디어 고사상이 마련되고 성주님께 각자의 소원을 적은 소원지를 바치고 술을 올린 후 큰 절과 함께 만복을 비는 성주풀이가 이어진다. 그리고 벽사유희의 하이라이트, 각자의 소원을 적은 소원지를 태우고 술과 음식을 나눈 후 원을 그리며 덧배기 댄스를 흥겹게 추면서 벽사유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전통이자 놀이로 현대화

지난 4월 부산문화재단에서 있었던 지역특성화문화예술지원사업 심사에서 수영에서 대대로 이어지며 함께 참여하고 즐기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통연희인 수영지신밟기의 생명력을 되살린다는 기획의도와 그 실행계획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언제부터인가 개발을 앞세운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취향, 문화, 습속의 향유와 함께 국적불명의 서구문화가 물밀 듯이 밀려와 전통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시기에 때마침 적절한 기획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일면 잘될까하는 의구심이 든 것이 사실이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전통을 지켜오면서 그 자체에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연희 안에 전통과 현대를 같이 아우르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통이 지켜지면서 새로움을 더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다행스러웠다. 이야기 구성과 동작은 얼마든지 바꾸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음악 작업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250년을 지켜온 가락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을 바꾸는 순간 전통이 사라질 수 있기에

그 고민은 대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영지신밟기보존회 전수자 김병립 선생과 음악감독으로 참여한 프랑스의 색소폰 연주자이며 프로듀서, 작곡자인 Etienne de la Sayette(에티엔 드 라 사이애뜨), 이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 그리고 공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벽사유희 제작과정에 참여한 수영지신밟기보존회 회원분들과 연기, 음악, 안무, 연출, 소품, 의상으로 참여한 젊은 예술가들의 만남은 단순히 전통과 현대 문화가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세대 간의 만남이었고 동시대 예술가들의 만남이었으며 다른 시공간의 만남으로 승화된 것 같아 이후가 더 기대된다. 당초 기획의도에서처럼 전통의 현대화 작업으로 단지 과거를 재현하는 낯선 볼거리가 아니라 절기가 바뀌거나 새로운 공간과 행사를 열 때마다 이웃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서로의 안녕을 축원하는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전통이자 놀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재공연이 이루어져 수영지신밟기가 어떻게 현대화되었는지 더 많은 시민과 관객이 볼 수 있길 기대한다.



소극장, 새로운 연극을 향하여 〈2016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글 | 전혜림 극작가,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사진제공 | 부산소극장연극협의회

2013년 봄, 부산소극장연극협의회와 함께 시작된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은 지역문화예술운동이며 축제의 장이다. 그리고 2016년 11월,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의 네 번째 막이 올랐다. 올해는 극단 아센의 〈금자네〉(하늘바람소극장)를 시작으로 극단 노마드 〈도둑들의 집〉(레모트리소극장), 극단 맥 〈BINARI〉(소극장6번출구), 극단 이그라의 〈바냐 아저씨〉(열린아트홀), 부두연극단 〈동물원야기〉(엑터스소극장), 극단 자유바다 〈웃이 웃다〉(청춘나비아트홀), 마지막으로 극단 가마골의 〈서툰 사람들〉(한결아트홀)까지 일곱 개 이야기가 소극장 무대에 올랐다. 부산소극장연극협의회는 본 공연을 외에 두 가지 부대행사를 준비했다. 그 중 첫 번째는 올해 처음 시도한 〈창작낭독무대〉로 “희곡이 없다면 연극도 없다”는 슬로건 아래 희곡의 문학과 중요성을 무대 중심에 두며 지역연극의 미래와 자주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또, 〈배우의 힘 - 에쥬드 대회〉는 10분 즉흥극 대회로 올해부터는 대회 참여 범위를 일반인에게로 확대하여 17개 팀, 41명이 참여,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창작낭독무대



연극 〈바냐 아저씨〉

권태로운 삶 그 비극적 일상 〈바냐 아저씨〉

2008년 창단한 극단 이그라는 작년 소극장연극페스티벌에서 큰 호응을 얻은 사실주의 연극의 대가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의 〈바냐 아저씨〉를 다시 무대로 불러왔다. ‘전원 생활곡’이라는 부제를 단 〈바냐 아저씨〉는 체홉이 추구했던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자체이다. 부러 꾸미지 않고 숨기지 않으며 그 무엇보다 주장하지도 다 그치지도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여줄 뿐이다. 최성우 연출에게 〈바냐 아저씨〉는 러시아에서 만난 첫 사실주의 연극이었다. 연출자는 당시 기억과 느낌을 잊지 않고 지내다 직접 번역과 재구성 작업을 하여 극단 이그라만의 〈바냐 아저씨〉로 탄생 시켰다.

푸르스름한 어둠이 내려앉은 무대는 최성우 연출과 김정순 배우가 러시아 유학시절 모아둔 소품들로 꾸며졌다. 주 무대는 응접실과 테라스. 테라스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는 햇빛은 나무들만이 자리한다. 잎사귀 하나 없는 나무들은 바냐의 황량한 삶처럼 보인다. 남의 인생을 위해 평생 노동을 천직으로 알며 홀로 늙어버린 바냐(권철) 그리고 사위의 명성이 자신의 삶이 되어버린 바냐의 어머니 보이니츠스카야 부인(김혜정), 아스

트로프를 향한 사랑을 6년째 이어오고 있는 소냐(김일숙), 통풍에 시달리며 남의 인생까지 좀 먹는 세르브라코프 전 교수(이동희), 세르부라코프를 돌보기 위해 방문한 아스트로프(박일) 그리고 이들의 중심에 선 엘레나(김정순). 조용한 시골 저택의 규칙적이고도 권태로웠던 일상은 교수와 그의 부인, 의사 아스트로프의 등장과 함께 전혀 다른 오늘을 맞는다. 〈바냐 아저씨〉인물들의 시선은 자주 관객석 너머로 향한다.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들속로 드러나는 것은 각자의 내면이다. 서로에게 말을 전하고 있으나 결국 돌고 돌아 자신에게 향하는 활이다. 인물들이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순간, 바냐가 남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각성한 찰나 이야기는 끝을 향해 달린다. 극장 안을 채우는 총성,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이어지는 바냐의 절망 그러나 반복되는 가혹한 일상. 슬프게도 우리는 바냐의 절망 앞에서 희망을 찾는다.

웃에 가려진 삶의 진실 〈웃이 웃다〉

극단 자유바다의 정경환 연출은 그의 연극 인생동안 연극의 기본성을 지키며 창작극 작업을 고집해왔다. 김문홍은 정경환 연출을 들어 “희곡문학에 ‘연극성’과



연극 <웃이 웃다>

‘문학성’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함께 아우르려고 하는 보기 드문 작가”라 평한 바 있다. 1993년 극단 창단이 후 오랜 시간 한국 근·현대사에 집중해온 정경환 연출은 부산을 무대로 한 이야기를 선보이더니 이제는 가깝고도 익숙한 우리네 일상을 이야기한다.

<웃이 웃다>의 무대는 어느 동네에나 있는 수선집이다. 자숙(강혜란)의 수선집은 그녀의 뛰어난 실력과 꼼꼼함 덕분에 많은 고객을 두고 있다. 자숙의 주 고객은 항상 남자를 찾아나서는 자숙의 친구 자영(엄지영), 성악가를 꿈꿨으나 현재는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벨칸토 박(김명희), 교양과 배려가 몸에 밴, 있어 보이는 여자 영지(박지영),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매출은 자랑하면서도 수선비는 외상 하기 일쑤인 카르텔(엄지영), 레이스가 달린 여자 옷을 입는 호남자(양성우)이다. 이들은 자숙의 수선 집을 드나들며 서로를 관찰하고 이내 관계를 형성한다. 본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했던 옷이 시대가 변화·발전하며 자기표현과 함께 필요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자연에 대응하던 것에서 사회에 대응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이다. 정경환 연출은 옷에 담긴 인간의 욕망을 <웃이 웃다>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질문한다. 옷은 무엇인지, 사람이 왜 옷을 입는지, 옷의 주인은 누구이며 옷의 완성은 무엇인지 말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결국 산다는 것에 대한 물음이다. 걸치장에 불과한 옷에 눈이 멀어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하기를 서슴치 않으며, 어느새 내 몸에 맞는 옷이 아닌 옷에 맞는 몸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서툰 사람들> 사랑의 역설

극단 가마골은 지난해 봄, 고 이윤주 대표에서 김하영 대표로 극단 체제에 변화를 주었다. 그해 가을, 가마골소극장이 부산 기장군에 자리를 잡으며 초창기 가마골소극장 연극을 이어 받는 동시에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폐막작 <서툰 사람들>은 작가 장진의 탄탄하고 유쾌한 희곡과 고 이윤주 대표의 연출력이 더해져 극단 가마골의 대표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2015년부터는 김하영 대표가 재연연을 맡아 삭막한 현대 사회에서의 사랑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



무대는 중학교 교사 ‘유화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이다. 값나가는 물건 하나 없는 집에 고장 난 현관문은 잠기지 않고, ‘유화이’는 맥주 한 잔으로 고된 하루를 달랜다. 깊은 밤, 서툰고 양심적인 초보 도둑 ‘장덕배’가 잠든 ‘유화이’의 집에 나타난다. 그러나 도둑 ‘장덕배’는 오히려 ‘유화이’의 안전과 생활을 염려하고 집주인인 ‘유화이’는 친절하게 ‘장덕배’의 주머니 사정을 배려해주는 등 우스운 상황들이 연출된다. 그 시각 아래층에 사는 남자 ‘김추락’의 자살 소동으로 경찰들이 몰려오고 ‘유화이’와 ‘장덕배’는 서툴게 서로를 알아간다. <서툰 사람들>코믹극 혹은 소동극으로 불리지만 극단 가마골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랑의 힘’이다. 외로운 사람들, 숨 돌릴 틈 없이 팍팍한 사회, 개인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마음 한 자락 나누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시대에 무대 위 두 남녀는 사회적 조건과 외면을 벗겨내고 자연인으로 상대를 바라본다. 120분이라는 시간 안에 완전한 결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가진 사랑의 힘이 모든 조건을 넘어 온전한 주체로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한다. 그날 밤 ‘김추락’이 뛰어내리지 않고, 초보 도둑 ‘장덕배’가 도둑질을 멈춘 것처럼 말이다.

극장으로의 초대

“아무 것도 없는 어떤 빈 공간을 설정하고, 그것을 빈 무대라 부른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동안, 누군가 이 빈 공간을 가로지른다. 이것이야말로 연극의 행위에서 필요로 하는 전부인 것이다.”

연극연출가 피터 브룩의 말이다. 극장은 지켜보기와 보여주는 행위가 만나는 환상의 공간이다. 보여주는 사람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무대가 되고 그 안에서 배우와 관객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소극장은 사전적 의미의 작은 공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뚜렷한 이념과 방향성, 실험과 전위 그리고 창작과 꾸준한 공연을 통해 순수예술의 실현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를 위해 부산의 소극장들이 협력하여 시스템 구축과 공동기획을 하여 매년 가을 소극장 축제를 여는 것이다. 2016년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은 신선하고 다채로웠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기획과 마케팅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남았다. 기획·마케팅 분야가 강화된다면 소극장 연극의 활성화와 더불어 소통하는 연극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

연극 <서툰 사람들>



1) 김문홍, 「질곡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단죄와 트라우마-정경환의 희곡문학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테러리스트』, pp.308-309, 산지니, 2009.

교류(交流): 함께 흐른다는 것의 의미

베이징, 상하이 청년예술가 국제교류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글 · 사진 | 박은지 미술비평, 전시기획

〈2016 청년예술가 국제교류〉 해외진출 프로젝트는 부산지역 시각예술 분야의 청년예술가들이 해외 현지 유관기관 관계자와 작가들의 만남, 시각예술 관련 지역과 축제 기관 및 작품 등을 탐방을 통해 국제기량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향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를 위해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11박 12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 글은 중국의 미술현장과 중국과 교류의 측면에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결코 한 단면으로 국한 시킬 수 없는 만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중국: 선입견, 편견 그리고 공백

청년예술가 국제교류 프로젝트 2016, 그것의 시작은 이랬다. 한때 일본이 ‘멀고도 가까운 나라’로 기술되었다면, 우리에게 있어 중국의 미술은 미술시장의 규모나 거래액 또는 미술관의 양적 성장에 대한 수치화된 보도들과 연구 자료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공백이었다. 그러한 자료들은 오히려 ‘거품’이라는 이름의 선입견과 편견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내가 가진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베이징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정 가운데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의 국립·시립 미술관의 규모를 넘어서는 사립 미술관과 갤러리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구역 단위와 비견할만한 작가촌들, 선진국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중국 미술시장, 우리는 중국의 미술 현장에서 그것들을 목도했다.

중국미술의 독자성

우리들을 매혹시킨 전시장의 규모와 전시장 운용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 작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의 규모와 유입되어 있는 자본들을 확인하고 중국 미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불식된 이후부터 나는 줄곧 중국 현대미술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점점 더 동질화 및 동일화되어 가는 세계의 지형 속에서 중국만의 독자성을 어떻게 확립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미술현장들을 살펴보았다.

베이징이 정치의 중심지로 전통적이고 관료적이며 반상업적인 도시문화를 형성한 반면, 경제특구로서 상하이는 통속적이고 대중적이며 상업적인 도시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두 도시의 문화차이는 그 지역을 뿌리로 설립된 전시 공간의 성격과 전시 작품의 선택 및 선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 공통적인 부분도 있었다.



청년예술가 국제교류 〈해외진출프로젝트〉 기획사업

- 지원분야 : 시각예술
- 지원내역 : 참가경비(교통비, 체재비, 강의료 등 일체)
- 추진기간 : 2016년 11월 15일(화) ~ 26일(토)
- 장 소 : 중국(베이징, 상하이)
- 참여작가 : 강민기(조소), 김성진(설치), 김유나(사진, 영상), 김은주(복합), 박은지(기획), 신누리(조소, 설치), 유은석(조소), 이창운(조소), 정은울(회화), 조나경(조소, 설치), 조정현(조소, 설치), 황인지(회화)



1. C5Art gallery, 2. 798예술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가 혼성하는 공간’, 이것이 바로 그 공통분모이다. 중국은 정치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를 경제 분야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다. 강력한 국가주의와 개인주의 사이, 경제에서 자본주의를 채택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물질주의 등, 중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작가들 스스로의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자아를 찾기 위해 사유하고 그것을 실천했다. 그와 동시에 미술계 내부에서도 비판과 저항의 과정들이 있어왔고 이것이 바로 국가적 경제를 가로지르는 (Trans-national) 글로벌리즘에도 불구하고 중국 예술의 독자성을 형성하게 했다. 이런 현상들을 목도함으로 느끼고 현장에서 살아가는 관계자들 및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몸으로 겪은 것이다.

실천하는 내부자들과 우리

세계 미술시장에서 중국미술의 위상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급성장한 중국 미술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들도 있다. 작품 가격에 대한 거품과 시장의 안정성, 작가와 작품에 대한 검증에 대한 문제들은 외부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전시와 작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검열의 경계 가운데 예술가들의 사회적 실천의 노력들 역시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사회와 자본의 영향 속에서 예술과 예술가의 위치, 새롭게 등장한 도시 공간의 의미와 전통적인 일상공간이 재창안되는 방식, 예술이 일상의 공간에 개입하는 방식들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중심으로 논의의 시간들을 가졌다. 또한 국제교류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진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우리는 작품이 만들어진 맥락에서 이탈해서 해석되고 소비되는 것, 미술을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 다른 정치적인 노력들이 필요함을 관찰했다.

기회의 땅, 중국의 11박 12일 프로젝트를 정리하자면 그렇다. 이는 그저 그런 허상과 환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China Dream’ 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중국을 역사와 문화, 그 삶의 깊이보다 겉치레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지점에서 우리의 90년대와 같이 놓고 본다. 그러나 그 형식적인 틀을 세워 나가는 속도와 규모는 그 어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형식적인 틀 속에서 내용이라는 것도 채워지는 것이 아니던가. 11박 12일 간의 짧고 빠빠한 일정 가운데 우리가 목도하고 체험한 것은 전체의 일면, 한 단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서의 Cafam, Minsheng Art Museum, Art Nova 100, 798 파산즈, 레드브릭 미술관, C5아트센터, 차오창디, 상하이에서의 M50



1. 상하이 비엔날레, 2. 베이징 Red Brick Art Museum 큐레이터와의 간담회

예술특구, YUZ Museum, Rockbund Museum, Aurora Museum 히말라야 미술관, 상하이비엔날레, 주가각 레지던시, 하우아트뮤지엄 등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났던 관련 기관들과 사람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주었다.

함께 흐른다는 것의 의미

11박 12일 간의 <청년예술가 국제교류> 해외진출 프로젝트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지극히 소박하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돌아온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손에 쥐어진 명함 몇 장과 함께,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 몇 컷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짧은 기간의 빠빠한 일정 가운데 작가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만남의 깊이를 더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누군가는 고작 얼굴을 마주한 것일 뿐이라고 비소 섞인 목소리를 높일지도 모른다. 글을 마무리함에 있어 새삼스레 교류의 의미를 짚어보자면 ‘교류(交流)’라 함은 서로가 교차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류는 서로가 서로에게 흐르는 것, 서로 통(通)하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자 교류의 의미가 아닌가?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면 대 면’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11박 12일 프로젝트는 우리를 그 출발 선상에 세워 주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는 지금부터 시작한다. 프로젝트를 함께 참여한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 나가기 위해 AIGAI란 이름으로 한 곳에 자리했다. 그리고 그들과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흐르기 위한 방법을 프로젝트 이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모색 중에 있다. 이러한 작은 실천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부산문화재단은 지금

제5대 부산문화재단 유종목 대표이사 취임

2016년 12월 13일(화), 감만창의문화촌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융복합 문화사업 개발에 힘 쓰겠다”

부산문화재단은 12월 14일(수) 감만창의문화촌에서 제 5대 유종목 대표이사 취임식을 열었다. 유종목 대표이사는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동아대학교 인문대학장·교무연구처장·박물관장을 역임하고,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한국민요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유종목 대표이사와 재단 직원들은 부산문화예술 비전을 위해 부산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청년예술가의 열정을 담다

청년아트페어 <UNDER 35>

2016년 12월 15일(목) ~ 18일(일), 사상인디스테이션

부산문화재단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는 지역 청년작가 작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청년아트페어 <UNDER 35>를 개최하였다. 참여작가는 약 50명 정도로 회화, 사진, 공예, 조각, 일러스트 등 소품부터 대형 작품까지 약 200여 점이 전시, 판매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 문의 : 청년사업추진팀 051-316-7631



청년문화 양성인력 프로젝트 <20Show> 개최

2016년 11월 2일(수) ~ 6일(일), 중앙동 비온드가라지

지난 11월 청년문화 양성인력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청년문화축제 <20Show>가 개최되었다.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청년 20명이 4개의 단체를 구성해 기획한 축제로 연극콘서트, 전시, 공연,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부산문화재단은 청년문화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부산의 청년들이 주도하고, 청년문화를 발굴, 지원하는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이다.

• 문의 : 청년사업추진팀 051-745-7292



예술로 물든 거리를 꿈꾸다

<부산거리예술> 토론회 개최

2016년 12월 22일(목), 부산공연예술연습공간 대연습실

부산의 거리예술에 대한 논의와 거리예술가들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부산거리예술> 토론회가 지난 22일(목) 부산공연예술연습공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국내거리예술의 동향과 부산 거리예술이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산문화재단은 거리예술 콘텐츠 발굴사업과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의 거리예술분야 지원사업 등 거리예술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 문의 : 창작공간팀 051-745-7244-5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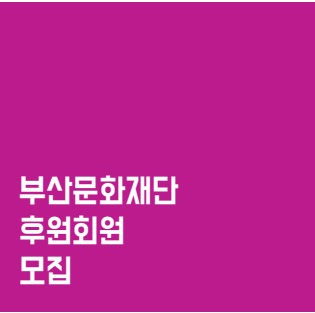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

2016년 12월 15일(목), 벅스코 컨벤션홀

부산문화재단은 생활문화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5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예술가, 마을활동가, 시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생활문화의 키워드와 방향성 등에 대해 토론이 이끌었다. 재단은 올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문화연합회를 구성하고, 생활문화예술제 지원 등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 문의 : 문화사업팀 051-745-7252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 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화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후원회원 혜택

-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 재단 기념품 증정
-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시민평가단 우선 순위 배정

후원회원 종류

- 일반회원 : 매월 1만원 정액 납부
- 연간회원 : 매년 20만~50만 원 정액 납부
- 평생회원 :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 단체회원 :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후원회원 가입방법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 -> 알림마당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문의 사항

- 경영지원팀 051-745-7216

새로운 풍경을 만나다

사람들은 지난 기억을 더듬더듬 읊어 내기를 좋아 합니다.
그러나 기억은 언제나 처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해지곤 합니다.
아마도 사이시간에 개입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을 재현해 나간다는 것은
마치 기차를 타고 가며 풍경을 말하는 것과 같을 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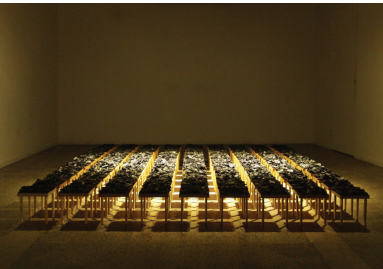
작가노트 중



March in place, Variable video installation 6m 24s, 2015



Dreamscape-Interval (a part 1, 3), dried tree, charcoal, variable installation, 2016



Dreamscape-Interval, charcoal, variable installation
(each 20x20x20cm)x99) & Breathing of charcoal sound(4m27.17s), 2016

김보경 작가

- 2016 '暇・見・別・景(가・견・별・경)', 스페이스 닷, 부산, 한국
 - 외 서울, 부산, 일본에서 7회의 개인전 및 다수의 프로젝트, 단체적 참여
 - 현. 원도심 또따따가 입주작가
 - 2016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시각예술분야 선정
- E-mail. aaronart@naver.com

가장 빠른 [부산문화재단] 소식!
실시간 공유!

부산문화재단
최신소식 공유하기



예술창작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부산문화재단



문화행사 사진은
인스타그램으로!

#부산문화재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카카오톡 친구찾기에
[부산문화재단]을 검색 하신 후
친구추가를 해주세요.

